



#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009년 9월 Vol.185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모교 이장무 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하버드대 드류 파우스트 총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보스턴에서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모교 송호근 교수(사회학)

## 모교-하버드 50년 교류사

- ◇하버드 엔칭 프로그램 파견
  - ▶1954-2009 신용하 교수 등 총 70명
- ◇하버드 출신 서울대 교수
  - ▶인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약 60명
- ◇학술교류 협정
  - ▶2001.3. 모교 화학부 BK-21 사업단-하버드대 화학과
  - ▶2005.9. 모교 치과대-하버드대 치과대
- ◇최근 공동 학술행사
  - ▶2009.3. 모교 행정대학원-하버드 케네디 스쿨 워크숍
  - ▶2009.8. 규장각에서 서울대-하버드대-UCLA 박사과정생 공동 논문발표
- ◇초빙교수/초빙강의, 연구
  - ▶초빙교수=국문과 박성창 교수,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
  - ▶초빙강의=송상현 교수(로스쿨), 조동성 교수(MBA), 권영민 교수, 이태진 교수(동양어문화연구소)

## 서울대-하버드대 50년 우정다져

### 이장무·파우스트 총장 개교후 첫 보스턴 회동 동아시아문제 등 모교와 협력관계 중요성 밝혀

서울대의 국제화 선봉 이장무 총장과 하버드대 최초의 여성 총장 드류 파우스트 총장이 지난 8월 보스턴에서 회동했다. 두 총장은 대학간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우스트 총장은 "우리 대학은 동아시아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와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총장이 서울대 총장과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전공분야별로 이뤄지던 양 대학의 오랜 협력 관계가 본부 차원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들이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모교 하버드대 인연은 5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대학이 최초로 교류를 시작한 것은 '하버드-엔칭' 프

로그래를 통해서였다. 전 세계에서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를 선발해 하버드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할 기회를 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교에서는 1954년 려기친 동문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70명을 파견했다. 국내 연구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시절 하버드에서의 연구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

1986년 연구원으로 파견됐던 국사학과 노태돈 교수는 "당시 중국이나 북한 자료를 남한에서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하버드에 가니 다 있어 연구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가장 활발한 교류가 이뤄진 것은 한국학 분야다. 하버드 '동아시아 어문화 연구소'에서는 2007~2008년 국문과 박

성창 교수, 권영민 교수, 철학과 이태진 교수,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를 차례로 초빙해 특별강연을 열었다. 한국학의 거장인 카터 에커트 교수는 서울대와 함께 하는 새로운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에서는 지난 달 서울대와 하버드, UCLA의 한국학 박사과정생들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2면에 계속>

PRSRIT NON 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FI 1068

## 미주 동창회 업무인수인계

### 9대 회장단 결산보고 등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9대 회장단과 10대의 사무 인수 인계가 9월9일 이전구 9대 회장 사무실(131 W. 35th St. 뉴욕)에서 진행됐다. 뉴욕의 이전구 회장, 김창수 감사, 김원영 회보 편집위원, 그리고 시카고의 송순영 10대 회장, 김정주 사무총장이 참석한 이날 동창회의 주요 문서와 2007 회계년도(2007년 7월 1일~2008년 6월30일) 및 2009

회계년도(2008년 7월 1일~2009년 6월30일)의 각급 재무 명세서 서류를 확인, 인계했으며 미주 동창회보를 시카고에서 인수한 이후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 이번 인계인수된 재무 관계 서류는 양 회계년도의 수입지출에 관한 은행 거래, 종신 이사 기금 명세서(SNUAA USA Permanent Director's Fund), 서울대 발전 기금 명세서, 미

주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SNUAA USA Fee Data Query) 등이다. 동창회의 중요 공문 서류는 연방 사세청 비영리 단체 등록 서류(I.R.S. Non-Profit Organization Application), 주 정부 비영리 단체 등록서류(State of Delaware-Certificate of Restatement of the Certificate of Reincorporation of SNUAA USA), 그리고 미주 동창회 회칙(By Law of SNUAA USA) 및 8-9대 회장단의 세금 보고서 등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평의원 회의(제16차 2007년 5월18~20일; 제17차

2008년 5월 16~18일; 제 18차 2009년 5월15~17일) 관련 기록들이 포함됐다. 9대 회장단은 10대 회장단으로 인계되는 제반 서류들을 하드 카피 외에 전자 파일들로(CD 13개와 메모리 카드 1개)로 작성해주는 배려를 했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잇슈 중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타이틀의 디자인과 세 단어로 떼어 쓰는데 대해 뉴욕 측의 의의가 제기됐다. 김정주 사무총장은 "타이틀을 현재형태로 사용하며 2010년 평의원 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진  
경제 불황  
바닥쳤나?

## 오바마 금융·경기진작 정책 주효하나? 4면

### 미국 경제가 호전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5면

# 오기창·조봉완 동문 결혼 50년 축하

## 유학의 부총장·부학장 역임한 박사부부 "책 함께 쓰자"는 청혼 약속 반세기 후 실현

오기창(법대 50년 입)-조봉완 동문(법대 53년 입) 부부가 지난 8월 29일 결혼 50주년 금혼 축하연을 가졌다.

이들 부부의 50년 해로가 처음 시작된 곳은 서울대 캠퍼스가 아닌 뉴욕 총영사관 지하실.

서울대 법대 졸업후 위스컨신의 마켓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그가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수학 중이던 1958년 3월 당시 한국의 유엔 주재 임제버 팀의 문화공보관 직책을 가진 그가 Pan-Pacific Women's Association이 주관하는 대평양 지역 문화제에서 한국의 전통 결혼 예식을 시범하는 데 신랑 역할을 맡은 데서 발단했다.

컬럼비아 대학 부설 여자 대학인 뉴욕시의 버나드 대학 재학생 조봉완이 한국 전통 결혼식 시범의 진행을 맡았다.

신부 역할은 한국의 여배우 최지혜였는데 오기창 청년의 눈에 든 것은 조봉완. 그 해 3월부터 총영사관 지하실에서 연습을 하며 사귀던 그들은 5월 문화쇼를 마치고 위싱턴의 조지 타운대

학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오 박사는 마켓대학에서 국제정치학 교수, 정치학과장, 대학원장을 역임한 후 워싱턴 DC의 가톨릭 대학에서 부총장을 역임하고 은퇴했다.

부인 조봉완 박사는 서울대 졸업후 1956년 도미, Barnard 대

오 박사 부부는 2001년 은퇴 후에 한국 대미 외교 역사를 요약한 '주미 한국 대사관'을 공동집필하고 자녀들과 연고지인 시카고로 돌아와 에반스톤에 거주하고 있다.

1남 2녀의 자녀들은 각각 변호사와 의사로 8명의 손자녀들을 보는 재미로 은퇴생활을 하고 있다.

아들 제임스는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아버님께서 미 유학을 하셨는데 군사정부 때는 입학을 제의 받았지만 학자의 길을 지키며 대학 부총장에 오른 선구자였다. 어머니는 결혼 후 2개의 학위를 받으시는 등 가정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노력하신 점에서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금혼식

학을 졸업하고 1959년 오 박사와 결혼했다.

가정 주부면서 남편의 격려로 학업을 계속한 조봉완 동문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석사학위 후 시카고 대학에서 동양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시카고 로올라대 교수, 메릴랜드 세인트 메리 대학, 메릴랜드대 부학장을 거쳐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은 아들 제임스가 25년 전에 약속한 대로 자기 집에서 마련한 행사로 줄리어드 음대 출신의 조카 스테파니 박이 친구와 함께 바이올린 듀오로 축하해주어 더욱 감회가 깊었다"고 조 박사는 말했다.

↓오 박사 부부 금혼식에서 조카 스테파니 박이 친구와 함께 축하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다



##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동문회 손일근 상임 부회장 등 4인 수상

법과대학동창회(회장 김정국)는 지난 6월 5일 관악캠퍼스 법과대에서 모교 방문 행사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제17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시상식에서 정기승(법학49-57,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대법원 전 판사, 경원대 손일근(법학51입·본회 상임부회장, 왼쪽에서 세번째)초빙교수, 김&장 법률사무소 이재후(법학58-62, 왼쪽)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송백 오윤덕(행정61-65, 오른쪽)변호사

를 선정해 축하패를 수여했다. 이날 동창회는 모교 발전기금 목표액 100억원 중 현재 90여억원 정도를 모금(약정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SBS 윤세영(행정56-61)회장이 50억원, 대형로펌에서 23억5천만원, 이철승(법학78-82)동문이 3억원, 법대교수들이 5억원, ALP동창회가 5억원, 이태노·백충현 교수제자들이 1억9천만원, 각 기별 동창회에서 4억7천여 만원 등을 출연했다.

### < 1면 '서울대-하버드대 50년우정' 계속 >

파우스트 총장은 이장무 총장과 회견에서 "하버드 입학생들은 고교시절 서양언어를 배우고 대학에서는 동아시아어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대학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학 분야 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인 송상현 동문이 교수 시절 하버드 로스쿨에서 초빙 강연회를 열었다.

또한 행정대학원에서는 지난 3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재학생 20명을 초청해 '한국에서의 기업과 정부 관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다.

현재 서울대 전임교수 이상은 1천700여명이다. 이 중 약 60명이 하버드 대 박사 출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대 홍보부>

### < 1면 '미주 동창회 9대 10대' 역사 계속 >

회보 게재 동창회 조직과 임원 명단에서 '상임 이사 명단'은 9대 회장단에서 정한 것이므로 앞으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9대 회장단의 동창회보 편집실무를 담당했던 김원영 편집장은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동문들이 보내주는 사진의 품질이 좋지 않아 95%는 '포토샵'으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실정이었다"고 편집과정의 애로를 실토했다.

김진 편집장은 현재의 회보 편집 형태에 대해 "본문 기사를 영문으로 게재해 인쇄하기 보다는 한국어로 번역해 게재해야 독자들이 편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10대 회장단은 동창회비(회보 구독료 포함) 납부자 명단을 재확인토록 이 전구 전 회장에게 당부했다.

10대 회장단이 실무를 시작한 2009년 6월30일 이후 9대 회장단 구좌로 입금된 회비의 결산이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9대 회장단은 뉴욕 회보 편집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Quark, In Design, Photo Shop 등)를 시카고 동창회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했다.

9대 회장단 결산보고는 11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편집실>

### 서울대 미주 동창회 회보

발행인: 송순영(문)  
주필: 이윤모(농)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라철삼(LA) 백순(DC) 오갑남(BC)  
오기창(CH) 육길철(CH) 이석규(NY)  
이청광(LA) 임승재(SF) 한창섭(NY)  
편집위원: 고병철(법) 이승자(사)  
조대현(공) 윤효정(사)  
편집장: 이기준

### 9월호의 주요 기사

- 3. 박지웅 동문 '2009 젊은 과학자 상'
- 4. 오바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정책
- 5. 미 경제가 호전될 수밖에 없는 이유
- 6. 모교 개교원년을 바로잡아야 한다
- 7. 동문의 자랑스런 후예들 <> 미셀리
- 8. 노후 대책을 위한 재정계획
- 9. H1N1 2009 신종 플루
- 10. 건강 보조식품과 현대의학

- 12. 동문수상, 피는 물보다 진하다
- 13. 모국의 동문 동정
- 14. 동문 신간안내
- 15. 지역 소식
- 16. 지역 동창회소식(LA워싱턴뱅크버덴버)
- 17. 지역 동창회 소식(시카고)
- 19. 동창회비 납부인명록
- 22-29. 업소특
- 30. 동창회 조직과 임원



코넬 대학 화학과 박지용 동문

# '2009 젊은 과학자 상'에 선정

## 올 가을 백악관서 수상 5년 연구비 100만 달러

### 첨단 나노 소자와 광전자 공학 전문가

코넬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지용 동문(93 물리학)이 지난 7월 백악관이 선정한 '2009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Presidential Early Career Awards for Scientists & Engineers(PECASE)로 알려진 이 상은 1996년 클린턴 대통령 때 12개 연방 정부 및 출연기관과 연관된 연구를 하는 학자 중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린 젊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상금은 매년 20만 달러씩 5년에 걸쳐 100만 달러의 연구 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올 가을에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구비와 상을 받게 된다.

### 세계 최소 트랜지스터 개발 '네이처 표지인물'

박 동문은 차세대 첨단 공학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 탄소 초전도체와 나노와이어 등의 나노 소자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 광전자공학 전문가로 정평이 있다.

박 동문은 "기초과학에도 투자가 많은 미 국방부로부터 2007년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왔다. 국방부 추천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UC 버클리 시절이던 2002년 나노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소형 트랜지스터 개발에

참여해 '네이처'지에 표지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나노소자 연구에 몰두해 온 그는 "작은 물질들의 성질을 연구해 더 가볍고 빠르며 안정적인 소자를 만드는 연구로 미

그는 "젊은 과학자상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구의 시작단계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이같은 젊은 과학자상은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이다.

박 동문은 서울과학교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과학교 시절이던 1992



국방부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레이더와 레이저, 초고속 반도체 등도 국방산업의 연구 결과물이라는 것.

백악관은 "미세 탄소 물질을 이용해 빠르고 가벼운 소자를 만드는 박 동문의 연구가 미래의 국방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년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은 경력도 있다.

1998년 도미, UC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에서 3년간 연구원으로 지낸 바 있다. 그는 그 뒤 2006년 코넬대 화학과에 한국인 교수 1호로 임용됐다.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로 재

## Try To Remember Lyrics: Tom Jones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young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When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When dreams were kept beside your p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When love was an ember about to bi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Although you know the snow will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Without a hurt the heart is h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Deep in December, our hearts should remember  
And follow.

직중 연구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역사와 학문적 성과가 높은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특히 코넬대는 화학과가 속한 곳만 해도 노벨상 수상 교수가 많은데 자신에게 연구와 관련한 의견을 물어오기도 한다. 교수 지위나 학과의 장벽을 뛰어넘어 터놓고 토론하는 분위기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우리 한국과 같은 보수적 제도적 분위기가 강한 대학 사회에서 크게 반성할 부분이다.

그는 또한 "코넬대에는 한 달이 고 두 달이 고 연구실에 살면서 학문에 매달릴 정도로 연구 열정을 가진 학생이 많다. 교수로서 이런 학생들이 눈에 잘 띄게 돼 있다"고 전했다.

박 동문은 이어 "성적과 같은 결과에 치중하기보다 공부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 미국 아이비 리그의 교수들도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더 인정해준다. 우리 한국 학생들도 이런 열정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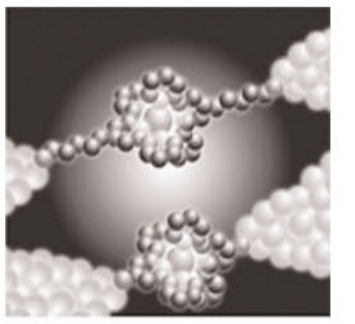
대학 사회에도 나날이 치열해져가기만 하는 경쟁사회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에서 하나라도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학생으로서도 겪어야만 하는 학업의 자세에 대한 박 동문의 조언이다.

부인 김어진(32)씨는 시라큐스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 주요 수상 경력
- 2003-2006 Rowland Junior Fellow, Rowland Institute at Harvard
  - 1998-2003 Graduate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 1998-1999 Robert and Susan Katz Fello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1998-1999 Physics Department Fellowship,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1996 Early graduation with Summa Cum Laude, Seoul National University
  - 1994-1996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 박 동문과 나노소자

세계는 초집적 회로의 개발



단분자 트랜지스터에서의 전자 이동

전쟁이 한창이다. 결국 현대 물리학은 실리콘에서 구조적 한계 사이즈로 접근하는 연구, 나노 스케일 사이언스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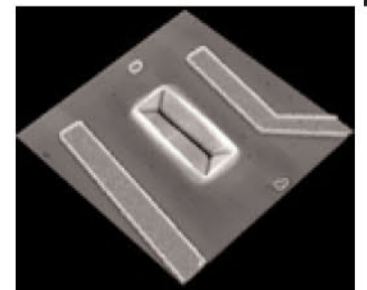
박 동문의 가장 인상깊은 연구결과는 바로 나노 스케일 소자의 개발이다.

그가 개발한 나노 소자는 초전도 소자로서 가장 뛰어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 물리학과 화학에서 첨단 나노 스케일이나 나노 소자가 쓰이는 곳은 무궁무진하다 할 것이다.

우선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통신은 물론 인간을 대신해줄

로봇 기술에 필수적이다. 또한 인간의 건강을 지켜줄 각종 진단기기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에 사용됨은 물론이다.



전자공학적인 특성을 위한 단막 카본 나노 튜브

특집: 경제 불황 바닥을 쳤나?



백 순 (법대 58년 입학) 연방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 오바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정책

##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한 정부 자금을 풀 금융구제 정책과 경기진작 정책이 주효하는가?

지난 몇 주 동안 공식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가 예측보다 괜찮은 수치를 나타내고, 동시에 뉴욕증시의 시세가 상승의 행진을 보이고 있어서, 침체 바닥치기와 경제회복에 대한 논의가 술술 나오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편이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인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침체가 바닥을 치고 조금 서행일지는 몰라도 회복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7월 29일에 12개 지방조직을 통해 전국 경제상황을 탐사 발표한 연방준비은행의 베이지 북은 "침체는 힘을 잃어가고 경제는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고, 가장 최근인 9월 8일 발표된 베이지 북도 "1개 지역을 빼고 11개 지역이 각종 경제활동의 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8월 2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 경제지문인 로렌스 서머스는 "세 정부가 시작한 6개월 전만해도 침체가 공황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논란을 벌였는데, 지금은 침체가 언제 끝나가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무장관 티모티 게이트너는 "갈 길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침체가 완만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8월 3일 타운 미팅에서 오바마는 경제가 "구제의 단계에서 재건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연방준비은행이나 대통령 경제지문이나 재무장관이나 오바마 대통령 자신까지 모두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혹심했던 경제위기가 완전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2009년 중반을 조금 넘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회복의 기미가 마련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 바닥치기의 근거는 크게 3분야로 나누인다.

2007년 경제위기의 발단으로 간주되는 주택시장, 경제위기의 핵심인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 침체 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국민 경제시장이다.

### 주택시장 거품 안정

경제 바닥치기를 주장하는 첫째 근거는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가 안정되어 가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현상이다. 가장 유력한 주택가격지표인 S&P Case-Shiller Price Index가 단독주택가격이 계속 끝을 모르고 하락하다가 4월에서 5월에 2006년 이후 처음으로 0.5% 상승하였다는 발표를 전했다. 그리고 신축주택 판매와 기존 주택 판매가 5월에서 6월에 각각 11%와 36% 올라 지난 9년 동안의 기록을 나타낸 것은 거품 폭발의 수렁을 헤메던 주택시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안정의 기미를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 금융안정되어 증권시장 부양

둘째, 금년 경제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안정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증시의 시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다우 존스 지수가 지난 몇 주 동안 상승세를 보여 9500대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은행들의 파산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경제 바닥치기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 GDP 하락세 감퇴

셋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중심지표인 GDP가 2008년 3/4분기 이후 -2.7%, -5.4%, -6.4%로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2009년 2/4분기에는 예측보다 나은 겨우 -1.0%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3/4분기에는 플러스로 약간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업률이 6월 9.6%에서 7월에 조금 낮아진 9.4%를 기록하다가 8월에는 9.7%로 약간 상승한 것은 경제침체가 바닥을 치고 있는 하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증거다.

여기에서 새로 출범한지 7개월 밖에 되지 않는 오바마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나쁜 경제위기를 맞아 단행한 제반 경제위기 극복정책이 침체 바닥치기 결과를 보는 데에 일익을 담당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는 대통령에 취임한 즉시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한 정부 자금을 풀어 2가지의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단행했다. 하나는 금융구제정책(Bail-Out Policy)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진작 정책(Stimulus Policy: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다.

베일 아웃 정책은 연방준비은행



의 각종 금융구제 정책과 맞물리어 일어붙은 금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이다. 파산위기의 은행과 투자금융회사에 긴급 구제금융을 해준다든지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악성 금융상품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함으로써 은행과 투자금융회사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된 것이다.

스티물러스 정책도 주로 거품폭발로 가라앉은 주택시장과 쏟아져 나오는 실업에 정부의 자금을 풀어 주택시장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이다. 파산위기에 있는 모기지에 도움을 준다든지 정부 투자사업을 일으키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택시장과 일반 국민경제에 회복의 기회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아직 베일 아웃 정책과 스티물러

스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한 정부 자금을 풀어 2가지의 경제위기 극복정책이 침체 바닥을 치고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논평이 나오고 있다. 물론 베일 아웃 정책이나 스티물러스 정책이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지향 정책'이라는 비판과 같이 엄청난 규모의 정부 간섭과 예산을 퍼부은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숫자의 정부 적자가 가져올 세금 부담과 고도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악성 경제위기의 현황

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침체 바닥치기 주장의 근거인 경제지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심사숙고해야 할 심자

반소비자에 대한 신용시장이 아직도 정색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의 소리 셋째는 GDP가 기대 이상의 적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주었지만, GDP의 누적된 마이너스 성장과 연관되어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7월에 예상보다 낮은 9.4%의 실업률을 기록했지만 8월에 9.7%로 상승했고 앞으로 적어도 10%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주류들이 주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내막을 보면 9.7%의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3분의 1이 넘고, 20세~24세 청년 실업자의 수가 35%를 차지한다고 하는 매우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다.

비판의 소리 넷째는 막대한 정부 자금의 방출로 인하여 아직은 안정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이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이자율도 상승하게 되어 경제회복의 기세를 꺾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당장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 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경제회복이 주춤하여지고, 실업률이 고도화하게 되면, 1970년대에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

## 14조 달러 부 상실에 중소기업과 소비자 금융은 경색, 실업률, 세금 부담과 인플 공포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 있는 악성 금융상품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함으로써 은행과 투자금융회사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된 것이다.

스티물러스 정책도 주로 거품폭발로 가라앉은 주택시장과 쏟아져 나오는 실업에 정부의 자금을 풀어 주택시장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이다. 파산위기에 있는 모기지에 도움을 준다든지 정부 투자사업을 일으키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택시장과 일반 국민경제에 회복의 기회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아직 베일 아웃 정책과 스티물러

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비판의 소리 하나는 주택시장의 안정조짐은 환영할 일이지만 주택시장의 거품폭발과 기타 자산의 붕괴로 인하여 미국인 가정들이 천문학적 수치인 14조 달러의 부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부상실의 역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상실의 역효과는 자연히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소비의 감소로 결과가 될 것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비판의 소리 둘째는 주식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은행 파산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중소기업과 일

선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이렇듯 거대한 부상실의 역효과, 풀리지 않는 신용시장의 경색, 지속적인 고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의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실은 경제 바닥치기의 주장을 무색케 만들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경제위기 극복정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여 낙관론자들의 경기침체 바닥치기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에는 앞으로 적어도 금년 후반과 내년 초반까지 경제의 추세를 관망해야 할 것이다.

특집: 경제 불황 바닥을 쳤나?



장석정 (법대, 72 졸업), 일리노이주립대 경영대 부학장

# 미국 경제가 호전될 수 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 “세계는 미국 경제의 침체를 방지할 수 없는 경제의 상호연대 작용 긍정적, 낙관적, 희망적 심리 펼쳐질 때 미 경제는 호전될 수 밖에 없다”

불황의 먹구름이 미국 경제를 계속 뒤덮고 있다. 몇 년전 불량주택 지당(서브프라임 모기지)과 부동산 시장이 붕괴함으로써 시작된 이번 위기는 곧 자동차, 금융, 보험, 외환, 일반 제조업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침체와 위축을 가져왔고 따라서 모두가 예의 없이 불황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Leman Brothers, AIG, Citigroup, Bank of America, GM 등 대기업들이 파산했거나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적 자금 긴급 수혈을 받아야 했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과 생산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지난 2007년 12월 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침체 기간 총 중 700만 명이 직장을 잃어 지난 8월 현재 실업자의 수가 1천500만 명에 달했고 또 다른 900만 명 가량은 부분 취업(파트 타임) 상태에 있다. 그 결과 불과 1년 전만 해도 6.2%이던 실업률이 8월에는 1983년 이래 최고치인 9.7%로 치솟았고 곧 두 자리 수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근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도 이미 폭풍 얼어붙어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 또 얼어봐도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도 지난 7월 중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초과했고 앞으로는 계속 불어나리라는 전망이다. 경제의 총산출규모를 가리키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액)의 동향을 보면 미국 경제는 2008년 4/4분기의 -5.4%와 2009년 1/4분기의 -6.4% 위축이라는 반세기 이래 가장 큰 2분기 하락세를 보였고 금년 2/4분기에도 -1.0%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4분기 연속 경기침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차대전 이후 가장 길고 또 가장 깊은 침체다.

이에 새로운 미국의 탄생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잃어지고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긴급히 경기부양법(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고 TARP(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라는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7천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 붓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는 좀처럼 쉽게, 빨리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미국 경제는 아직도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억지로라도 경제회복의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제의 부침(浮沈)은 사람들의 심리와 감성과 자세와 태도에도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를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경기동향과 경제전반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사실 일부에서는 경제가 이미 바닥을 쳤고 내년까지 조정기를 거친 뒤 2011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조심스런 낙관론도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계속 침체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굳이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보는 이유, 회복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를 열 가지만 살펴 보기로 한다.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는 낙관론을 펴뜨림으로서 경제 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다.

**1** 경기동향 지수가 상향으로 반전되고 있다. 경제가 이미 바닥을 쳤거나 곧 바닥에 이르러 이제 다시 반등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경기동향을 가리키는 지수들이 이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9월 들어 발표된 경기동향 지수들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 소비자 신뢰지수도 상향으로 반전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기는하는 Consumer Confidence Index가 7월의 47.4에서 8월에는 54.1로 올랐다. 이는 건전한 경제 상황에서의 신뢰지수 수치인 90이나 100에는 아직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 2월의 25.3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경제 전반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날 때 소비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다.

**3** 제조업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전국제조업구매관리기구(ISM)에 의하면 지난 18개월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생산량이 8월 중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18개 제조업종 가운데 11개가 상승세

를 보였고, 제조업 전반의 재고도 연 40개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호전의 희망을 주고 있다.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도 200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승세가 아직 가파르지는 않지만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4**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7월 중 기존주택 거래가 7.2%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이래 가장 높은 월별 증가율이다. 신규주택 거래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 전월에 비해 9.6% 증가했는데 이는 2007년 8월이래 가장 큰 증가율이다. 이번 가을에 만료되는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대한 면세혜택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집을 처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는 11월말까지 거래를 종료하면 구매가의 10%까지 또는 8천 달러까지의 세금보조를 받게 되는데, 부동산업계는 의회가 이 조치를 연장하도록 로비 중이다.

**5** 주식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경제전망에 대한

달출하여 다소 오름세를 보인다는 것은 전반적인 산업수요의 증가도 의미함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중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7** 미국 자동차업체가 다시 숨을 쉬고 있다. 지난여름의 Cash for Clunkers, 즉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근 70만 대의 중고차를 새차로 바꿔 약 3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한 때 세계 최대의 기업이던 GM의 파산으로 완전 소멸의 위기에 처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다시 가느다랗게나마 숨을 쉬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회생은 부품업체 등 연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그리고 달러, 정비업체, 자동차 금융업체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전반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8**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서서히 약효를 내고 있다. 근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 가운데 아직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효과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기부양 자금이 실업수당 지급, 감세 혜택, 공무원 해고

불수 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9**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그리고 서유럽 등이 조금씩 불황 탈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세계적 경제침체를 남달리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일부에서도 경기 호전의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것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이나 인도 등 저임금 국가에 설비투자를 벌이던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이전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10** 미국 경제가 호전될 수 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는 누구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는 상호의존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물론 아직도 그 중심은 미국이다. 미국의 GDP는 14조 2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는 세계 2위에서 5위까지 나라들의 GDP를 다 합친 것보다 큰 수치다. 그래서 미국 내의 소비지출이 하락하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공장들이 한가해 질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다른 나라들은 자국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도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고 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미국이 지난 십 수년간 바깥에서 빌어서 쓴 돈, 즉 대외채무가 11조 달러를 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빌어 쓰고 있는 미국이 당장 쓰러진다면 그 돈을 빌려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낭패를 본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한 분석이지만,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 세계는 미국 경제가 계속 침체하도록 버려둘 수 없다는 말이다.



전반적인 신뢰와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지난 3월에서 8월의 6개월간 23%이상 올라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회복의 기대를 더해 주고 있다.

**6** 국제 유가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여름 배럴당 140달러가 넘던 유가가 금년초 4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었는데 지난 8월 말에는 75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지나치게 높은 유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이지만, 유가가 바닥에서

방지 등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중고차 프로그램에 이어 올 가을말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기기 구매 보상 프로그램도 시행될 예정인데 이로써 고전 중인 가전업체의 매출 신장이 기대되고 나아가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도로, 교량,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시설의 보수, 확장, 신설 등으로 본격적인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용 투자가 시작되면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국경제는 아직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 기술력, 생산성을 가진 것은 물론 방대한 소비자 경제를 바탕으로 자구력, 복원력과 함께 끈질긴 지구력, 저항력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의 틀에서 미국 경제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진대 세계는 미국 경제의 침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경제의 상호연대도 작용하고 있다. 그 위에 긍정적, 낙관적, 희망적인 심리가 펼쳐질 때 미국경제는 호전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립 서울대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

# “모교 개교 원년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태진 교수(국사학과)의 연구 보고서 <1>

대학이 처음 설립된 해, 즉 개교 원년을 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거기에는 설립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와 뿌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모교인 국립 서울대가 설립된 해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1946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근세사로 볼 때 서울대는 1946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895년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태진 동문 교수(국사학과)의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3회에 걸쳐서 연재한다.

## 국립 서울대학교의 모체는 경성제국대학이 아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 8월 22일 미군정 법령 제102호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의 공포에 의해 대학원과 9개 단과대학을 갖춘 종합대학교로 설립됐다. 현재 서울대는 이 해를 개교 원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1946년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대학이 아니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9개 전문학교와 1개의 대학이 합쳐 서울대학교로 된 것이었다.

9개 전문학교 중 경성 법학전문학교는 1895년 설립된 법관 양성소, 경성 사범학교와 경성 여자사범학교는 1895년 설립된 한성 사범학교, 벽성 의학전문학교는 1899년 설립된 의학교, 수원 농림전문학교·경성 공업전문학교·경성 광산전문학교는 1904년 설립된 농상공학교를 각각 뿌리로 하고 있었다. 1924년 개교한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었던 경성대학의 비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1945년 광복 직후부터 1950년대

진 연세대학교는 연희대학교가 종합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에 불과한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개교 원년인 1885년을 통합, 연세대학교의 개교 원년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1885년의 병원(광

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다. 새로 조명된 국립서울대학교의 역사는 바로 이 과정에 해당한다.

A유형 42개 대학 중에는 38개 대학이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원 대학과 연결되는 가장 빠른 최초의 시점을 개교 원년으로 삼고 있었다.

대학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하버드대의 경우 1636년 교사 1명과 학생 9명으로 시작된 식민지 매사추세츠 주의 ‘목사 양성소’를 시원으로 하여 이 해를 개교 원년으로 삼았다. 5위인 캘리포니아 공대, 10위인 컬럼비아대, 12위인 프린스턴대도 각각 10명 이하의 학생으로 출발한 해를 개교 원년으로 삼았다.

B유형 9개 대학의 경우도 현 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방식처럼 통

개교 원

년으로 정했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국가정책의 방향을 부국 강병책에 두고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슬로건 아래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우선 서양 신문명을 이해하는 관료 양성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신식학교를 직접 설립하거나 인가했다.

1883년의 동 대학은 외국어 뿐만 아니라 서양 지식도 가르쳐서 정치·경제에 관한 지식을 갖춘 실무관료 양성을 목표로 했다.

1885년 이후에는 선교사의 신식학교 설립을 허가하기 시작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스 크랜튼이 세운 학교에 대해 왕과 왕비가 ‘배계학당’과 ‘이화학

을 만들고자 했고, 1895년 2월 16일 아펜젤러가 운영하는 배계학당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200명의 관비 장학생 입학 계획도 세웠다.

1895년 4월 19일 전문교육기관인 법관 양성소’의 법제를 정비해 5월 6일(음력 4월 12일) 입학시험과 함께 법관양성소를 개소했다. 5월 17일(음력 4월 23일) 50여 명의 입학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입학 후 8개월만인 1895년 12월 25일 47명이 제1회 졸업생으로 배출됐다. 이 졸업자 중 광복후 대한민국 제3대 부통령을 지낸 함태영이 수석으로 졸업했다.

또한 1907년 고종황제의 특사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된 이준열사도 1기생이었다.

법관 양성소는 이후 법학교-경성 전수학교-경성 법학전문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어진다.

1895년 5월 10일 학부는 소학교 설립 준비의 일환으로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95년 10월 처음으로 6개월 과정의 속성과 졸업생이 배출됐는데 이후 1906년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총 195명의 졸업자가 나왔다.

한성 사범학교는 훗날 경성 사범학교와 경성 여자사범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이어진다.

1895년 4월 3국 간섭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약화됐지만, 10월에 왕비 시해사건이 일어나 정국이 소용돌이쳤다.

군주 고종은 1896년 2월 일본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경복궁을 벗어나 잠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주해 군주권을 회복하고 1897년 10월 국체를 대한제국으로 바꿔 근대국가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추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그동안 유폐됐던 관립 고등교육기관 설립 및 개선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1895년 9월 27일의 ‘성균관 경학과 규칙’이 성균관에서 정전 공부와 아울러 시무에 필요한 역사나 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했다.

1896년 7월 16일 ‘성균관 경학과 규칙’ 개정은 사범학교의 고급학도를 성균관에 진학시켜 명실상부한 최고 학부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인문교육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잇고자 했다.

(다음 호에 계속)



개교 당시의 문리와 대학, 동송동, 1946

## 국내외 다른 대학들의 개교 원년은 어떠한가?

까지 종합대학교로 인가 받은 국내 10개 대학(서울대 제외)의 경우 사소한 연결고리만 있어도 가장 빠르고 작은 시작점을 개교 원년으로 삼았다.

학생 1명으로 출발한 이화여자대학교나 유치원에서 출발한 중앙대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국대학교나 한양대학교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학교의 역사도 설립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학교 역사에 포함시켰다.

서울대학교처럼 대규모 종합대학교로 출발, 혹은 통합하는 시점을 개교 원년으로 삼는 경우는 전혀 없다.

반면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해 만들어

해원) 설립을 바로 의학교 개교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영국 ‘The Times’ 선정의 2008년 ‘University Top 50위내 대학’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다.

공동 50위를 차지한 서울대를 제외하고 총 51개 대학(공동 50위 대학이 3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A유형은 대학의 역사가 ‘단선적인 성장과정’을 보이는 경우다. 다른 말로 하면 독립적이고 대등한 기관들이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시작점에서 꾸준히 확대 발전한 경우다.

B유형은 대학이 성장하면서 독립적이고 대등한 기관들이 통합

합 시점을 개교 원년으로 삼는 경우(4개 대학)보다 반대로 통합 이전 각 기관의 원년 가운데 가장 빠른 시점을 개교 원년으로 삼는 경우(5개 대학)가 약간 더 많았다.

예를 들어 1967년 카네기 공대

당’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다.

같은 해 조선 정부는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해 외교·통상의 시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 성균관(成均館)을 비롯한 유학교

## 근대화와 관립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과 성장

와 멜론 연구소가 통합해 만들어진 카네기멜론대(21위)와 2004년 맨체스터 이공대와 맨체스터 빅토리아대가 통합해 만들어진 맨체스터대(29위)는 통합 전 학교들의 개교 원년 중 가장 빠른 1900년(카네기 공대의 전신인 카네기 공업학교가 설립된 해)과 1824년(맨체스터 이공대의 전신인 맨체스터 공업학교가 선행)을 각각

육기관을 현대화 하고자 1887년 서울에 경학원(京學院), 각 도에 영학원(營學院), 큰 고을에 관학원(官學院)을 설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의 힘을 배경으로 친일 관료 양성을 목표로 고등교육기관 설립에 간하려 들었다. 그래서 고종은 한 때 미국 선교사들의 원조 하에 독립적인 왕립대학

동문의 자랑스런 후예들<3>

워싱턴DC.교육감 '미셸 리(Michelle Rhee)'

# “나는 느릿느릿한 변화는 기다릴 만큼 인내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동문의 자랑스런 후예들’ 기획 시리즈 세번째로 ‘미셸 리’를 소개합니다. 미셸 리는 소수민족 최초의 워싱턴 DC교육감으로 미 교육계에서 사상 유례없는 일대 개혁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문 제위들에게서는 이 시리즈를 위한 동문 후예들을 적극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셸 리를 워싱턴DC 교육감으로 전격 발탁한 에이드리언 펜티 시장의 깜짝 인사에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취임 첫 해의 과감한 개혁 조치는 논란거리였지만 사상 유례없는 개혁으로 엄청난 족적을 남겼다. 초중고생들의 수학(修學)능력이 지속 향상되고 흑백 학생간 성적차도 줄어 미셸 리의 교육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워싱턴 포스트’의 미셸 리(Michelle Rhee) 워싱턴 DC 교육감에 대한 평가 기사를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워 문장은 지난 2007년 6월 미셸 리가 충격적으로 워싱턴 DC 교육감에 전격 발탁된 뒤 바로 나온 것 중 하나다. 두번째 문장은 미셸 리의 그동안 성과에 대한 성적표다. 처음과 달리 그녀의 실적에 대한 칭송 일변도다.

미셸 리(한국명 이상희·39)는 이상열 동문(외대 65년 졸)의 2남1녀 중 둘째다. 1992년 코넬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볼티모어의 초등학교 3년간 교사 시절 비영리 교사 교육 단체인 ‘New Teacher Project’ 책임자를 맡았다. 당시 학생들의 성적을 크게 높여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소개됐으며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시 로라 부시 여사 옆자리에 초대받는 유명인사가 됐다.

그 뒤 에이드리언 펜티 시장의 적극 추천과 시 의회 만장일치로 2007년 워싱턴 DC의 초·중·고 교육계 사상 첫 소수민족 출신 교육감에 발탁돼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한 바다.

워싱턴 DC 초·중·고 공교육 교육계는 1만2천여 명의 직원에

무리 1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는 곳이다. 학생 1인당 예산이 전국 100대 학군 중 3위나 학생들의 수학 능력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지 오래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공교육을 강조해오던 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백악관으로 이사하고 나서 딸 쥬시를 사립학교에 입학시켰을까.

따라서 워싱턴DC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그만큼 막중한 자리인 데도 소수민족 출신을 교육감에 앉혔으니 주류 인사들의 반발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교육계 경험이란 볼티모어에서 초등학교 교사 3년 지낸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펜티 워싱턴DC 시장은 “나는 그녀의 능력과 위기에 대한 대응력, 관리 통찰력 등 모든 면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므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펜티 시장의 예측대로 미셸 리는 교육감에 오르자마자 천지개벽이라 할 정도의 개혁을 단행해 다시 한번 전역을 놀라게 했다. 취임하자마자 관내 159개 학교를 모두 찾아다니며 현장을 파악하고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개혁에 착수한 그녀는 부실학교 23곳을 폐교하고 비대조적인 교육청 장학관 100명을 해고시켰다. 게다가 교원노조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도 교장 36명, 교감 23명, 교사 250명을 쫓아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중에는 자신의 두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도 포함돼 있었다. 게으르고 무능한 교육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이었다.

교육감으로 교육개혁의 창조적 사상가가 교육개혁을 사회정의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계의 고질적 관료주의와 환관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썼다.

상원의 국토안보 및 정부문제 위원장인 저지프 리버먼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낙오아동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개정을 고려하는 미 의회는 그녀의 혁신적 교육개혁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격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워싱턴의 교육 시스템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젊은 시장과 훌륭한 교육감을 갖게 됐다”며 그녀를 칭송했다.

시사 주간지 Time’은 2008년 12월 그녀를 표지인물(사진)로 장식, ‘미 공교육 개혁의 전도사’로 극찬했다. 교실에서 길다란 빗자루를 들고 서있는 모습으로 ‘무능한 교



간 성적 격차는 전 학년에 걸쳐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지난 해에 비해 20% 이상 줄어 교육 당국을 크게 감동시키고 있다. 워싱턴 DC 학생들의 성적은 그동안 뉴욕을 비롯한 11개 도시 학생들 중 거의 꼴찌를 기록해왔다. 이같은 결과로 그동안 워싱턴 DC의 교육감은 9년간 무려 6명이나 바뀌어 온 것이다. 지나온 성적에 비하면 실제로 눈부신 성장이 아닐 수 없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수한 교사만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그녀의 지론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변화가 전적으로 미셸 리 교육감의 개혁 결과물’로 쓰고 있다.

종합평가 시험은 매년 초등학교-고교 2학년에게 실시되는 시험이다. 정부는 이 성적을 토대로 각 학교가 ‘낙제학생 방지법(NCLB)’이 요구하는 ‘연간 적정 진전수준(AYP)’ 달성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더구나 최근 초중학생들의 독해력 시험결과 지난 해보다 11%나 향상됐다. 학습이해 시험 준비를 위해 토요일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 수는 1천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학습현상이다. 교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 전문성 교육비로 2008-2009년 1천9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셸 리는 지난해 내셔널 프레스 클럽 기자회견 연설에서 “모두에게 행복한 결론은 없다. 당사자들이 조금씩 불만을 갖더라도 필요한 개혁은 밀어붙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미셸 리가 취임 초 ‘2013년에는 교육개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그 성과는 벌써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쓰고 있다.

## “워싱턴 교육계는 심각한 문제였으나 이제 훌륭한 교육감을 갖게 됐다”<버락 오바마> “미셸 리의 교육개혁 성과는 벌써 곳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워싱턴 포스트>

당시 지역신문 ‘Examiner’가 “미셸 리는 워싱턴 DC 공교육계와 같은 거대 조직을 경영해본 경험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비판 바도 있다. 이 신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같은 비판들을 쏟아놓았다.

반면 우수한 교사에게는 현재 연 6만~7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최대 13만여 달러까지 올려주는 파격적 성과급 제도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2008년 6월 “40년만에 소수민

족자는 끌어내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시사지 ‘뉴스위크’로부터 ‘올해 주목할 인물 100인’에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올 8월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발행하는 ‘O’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여성 20인’에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6월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녀의 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모두 의구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학부모의 76%와 교사 중 62%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최근 워싱턴 공립학교생들의 성적향상이다. 지난 7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초중학생과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치른 종합 평가시험에서 성적이 대폭 올랐다는 것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우수학생 비율이 지난 해 40.5%였으나 이번엔 48.6%로 8.1%나 증가했다. 중고생의 경우는 우수학생 비율이 39%에서 41%, 수학에서는 36%에서 40%로 대거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흑백 학생



↓이상열 동문(오른쪽)과 부인Inza Rhee씨가 Michelle Rhee(왼쪽에서 두 번째), 손녀 Starr Rhee(왼쪽), Starr의 사촌 Alissa Rhee(왼쪽에서 세 번째), Jason, 등과 골프장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재정계획 강좌

- 노후 대책을 위한 재정계획 -

“은퇴를 위한 지금은 평생 동안 모아둬야”



김창수, CPA·MBA  
(약대 64, 경영대학원 68)

서울대 미주 동창회원들의 구 성분포를 보면, 장년기(30세 전후)와 중년기(40세 안팎)에 속하는 동창들보다는 50세 이상, 그리고 회갑이 지난 노년층이 더 많다. 그만큼 이민 1세의 우리 동창들이 노령화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은퇴를 위한 재정계획도 50세 이상의 동문들께 초점을 맞추어 언급키로 한다.

미국에서 만 65세가 되면 은퇴자 그룹에 속한다. 물론 그 이전에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80여년 전에 만들어진 사회보장법에 의한 연금혜택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회보장법이 개정돼 1943년생부터는 만 66세가 되어야 사회보장 연금혜택을 100% 받을 수 있다.

조기은퇴를 하면 62세부터 사회보장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65세 혹은 66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75%만 받게 된다. 62세부터 65세 혹은 66세 사이에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면, 나이에 따라 최고 연금의 75% 내지 100% 미만을 받게 된다.

은퇴와 사회보장연금

미국에서 은퇴하면 사회보장 혜택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보장 연금은 노후생활비 충당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어, 개인의 재산이나 은퇴계획 없이 노후의 생활이 어렵게 되어 있다.

2006년의 자료로 사회보장청에서 밝힌 2008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후 노년기의 은퇴자 금액원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 연금혜택 37% ▶근로소득 28% ▶펜션, IRA 등 은퇴플랜 18% ▶개인의 일반 투자소득 15% ▶기타 2%

미국의 평균수명은 1950년의 68.2세에 비해 1980년에는 73.7세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77.8세로 더 길어졌다. 2030년에는 80.1세로 예상되어, 지금 65세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약 20년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3%내지 5%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은퇴를 위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을 알 수 있다. 은퇴를 위한 자금은 평생 동안 모아야 한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저축을 해야 하지만, 결혼·육아·주택장만·자녀교육 등 목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를 위한 재정계획(Personal Financial Planning)이 따로 필요하다.

장기 주식투자가 유리

일반적으로 은퇴자금을 위해서는 매달 수입의 15%를 무조건 저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축된 돈은 장기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주식과 주식형 뮤추얼 펀드

가 권장된다. 주식은 채권이나 머니마켓에 비해 가격 변동이 심해서 투자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원가 이하로 내려가서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투자 성과가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2008년에 주식값이 40%까지 폭락했지만, 1926년부터 82년간의 유가증권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수익률이 소기업 주식은 11.7%, 대기업 주식 9.6%, 장기 공채 5.7%,

단기국채 3.7%, 물가상승률은 3%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26년에 1달러를 투자 했을 때 2008년의 가격은 소기업 주식이 9천543달러, 대기업 주식 2천50달러, 장기 공채 97달러, 단기국채 21달러, 인플레이션이 12달러였다. 따라서 은퇴목적을 위한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수익을 보아야 하므로, 주식이나 주식 중심의 뮤추얼 펀드가 좋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상식이나 기술이 없는 일반인들은 주식보다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도를 낮추는 길이다.

그러므로 은퇴 계획의 투자기본은 주식이나 주식형 뮤추얼펀

드로 하고, 시장변동에 의한 위험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채권이나 채권형 뮤추얼 펀드에도 투자액을 할당해야 한다.

보통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 만큼의 퍼센트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것이 권장된다. 그래서 50세에는 절반은 주식, 나머지는 채권이나 현금자산에 분산하고, 65세에는 35%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채권·CD·머니마켓 등에 65%를 유지하라는 뜻이다.

65세 이후에 보유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높아져서 2008년 10월과 같은 주가 폭락을 경험하게 되면, 생활비 조달에 크게 차질이 생긴다. 그때 채권의 비중이 65%였고 주식이 35%였다면,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고 현금 흐름에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꾸준한투자다양화전략

그리고 투자는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Diversification)해야 한다. 서너개의 주식보다는 수십개의 주식, 같은 분야나 유사한 형태보다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혼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값이 오르면 팔고 예상되는 시기를 점치면서 시장을 쫓아가지 말고, 매월 꾸준히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투자 성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소위 'Dollar-Cost Averaging' 투자법이라고 하여, 주식이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계속 투자하면, 길게 보아 주당 구입가가 평균적으로 낮아져 양도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은퇴연령이 지났으며 생활비를 위한 현금이 모자라면 어떻

게 해야 하나?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일하는 수밖에 없다. 은퇴시기를 미루어 직장 생활을 계속하든가 운영하던 사업체 매각을 늦추어야 한다. 한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다른 직장을 찾든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한다. 특히 주식 값이 내려가고 불경기에 들어서면, 은퇴를 예상했던 그룹이 자연히 은퇴시점을 미루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의 기대치와 생활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생활비가싼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큰 주택을 팔고 작은 집이나 아파트로 옮겨 남는 돈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생활비를 낮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투자대상을 재정비해서 현금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성장보다는 현재 수입이 있는 투자, 장기투자보다는 고정수입이 있는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현금투자(Cash Investments)는 투자수익이 적은 대신에 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서 리스크를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어떤 때는 이자수입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서 투자 대상 중에서 인기 종목이 아니지만, 주가가 폭락할 때는 안전한 피신처가 된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채권과 함께 현금투자(예금, 머니마켓 계좌, CD, 머니마켓 펀드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changsookimcpa@hotmail.com>

동문 업소록을 정리합니다

미주 동창회보에 업소록을 등재하신 동문 중 은퇴 또는 타계하셨거나 사업을 그만 두신 분들, 그리고 등재를 원치 않는 동문의 광고를 업소록에서 정리합니다. 아울러 동문회 참여와 회보 활용에 관심이 없는 분들의 업소도 이 리스트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업소록 광고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07회계연도 이후 3년간 동창회비(회보 구독료 포함)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동문들의 업소도 자동 제외됩니다. 이번 9월호부터 업소록 후면측 페이지들이 일부 삭제되며 10월호부터는 업소록이 전면 개정됩니다. 업소록에 관한 업무는 정확성을 위해 전화 접수를 사절합니다. 업소록 내용 변경을 원하거나 탈락된 업소를 다시 등재하려는 동문은 그 내용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조치해 드립니다.

동창회 연락처: SNUAA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Email:SNUAAHQ@Gmail.com



건강과 복지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서울대의대 미주 동문회 웹 사이트 편집자가 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공하는 것임.

플루의 근원 및 감염경로

스와인 플루 (Swine influenza)는 2009년 이른 봄에 처음 멕시코에서 시작됐고 4월 처음 미국에 나타났다. 곧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으며, 2009년 늦은 봄과 여름에는 남반구(남미·호주·아프리카)에서 유행했고, 이제 북반구에 플루 계절이 오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래 이 바이러스(virus)는 돼지·새·사람으로부터 유래된 혼합종 바이러스로 2009년 봄 멕시코에서 새로운 돌연 변종된 바이러스로 변해 (2009 H1N1 influenza A virus) 사람에게 감염 능력을 얻어 독종 인플루엔자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게 됐다.

H1N1 바이러스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감염되고, 다음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다. 또 사람에서 돼지로 감염된다.

사람 사이의 감염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에 퍼지는 콧물이나 비말(飛沫: 입에서 배출되는 작은 물방울)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흡입했을 때, 또는 악수를 하거나 문고리, 카운터에 손을 대면 그것에 묻은 바이러스가 손에 묻혀져 입이나 코로 갈 때 감염돼 퍼져 나간다.

다행히 요리된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전혀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광우병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이 바이러스는 일단 사람을 감염시킨 다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로 금년 봄 걸렸던 사람이 아니면 거의 아무도 면역이 없으므로 금년 가을과 겨울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며 이미 9월 현재 미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발병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일단 걸렸으면 남에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책 열 가지를 든다.

플루 감염 예방 조치

1.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이 모인 좁고 막힌 장소를 피할 것 (극장, 만원 버스나 기차, 쿠르즈 여행, 비행기 여행, 등).
2. 다른 사람과 손의 접촉(악수·문고리·층계 난간)을 가능한 피하고, 외출 중이나 외출 후 반드시 자주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며, 손 씻기 전에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H1N1 2009 신종 플루 증상·예방·치료

특 한다. 손을 씻는데 반드시 비누와 물로 적어도 15초 내지 20초 동안 철저히 씻을 것이며, 알코올 (alcohol based disposable hand wipe or gel sanitizer)도 바이러스 소독에 아주 유효하다.

3. 일반 플루 예방주사와 신종 (Swine) 플루 예방주사를 빨리 맞도록 한다.

4. 평소 몸이 약한 사람, 노인, 어린이는 증상이 있으면 지체 말고 의료기관을 찾을 것.

5. 유효한 약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을 수록 유리하다.

6. 자신이나 가족 중 이유 없이 열이 화씨 100도 이상 나고 기침이 나면 플루에 걸린 것으로 간주한다.

감염된 후의 조치

플루에 걸린 것 같다는 의심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7. 기침할 때는 반드시 손이나 팔로 입을 가리고 하거나 마스크를 쓴다.
8. 출근이나 외출을 삼가고 가족 중 어린이와 노인과 가까운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한다.
9. 아플 동안은 물론 남에게 전염될 수 있고 증상(열)이 없어진 후에도 7-10일까지는 남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할 것.
10.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때 대개 4-10 일의 잠복기간 후 감염된 사람이 발병한다. 감염 후 증상없는 잠복기간 중에도 1-3 일부터 남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 때 자기가 감염되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을 쉽게 감염시킬 수 있다.

증상과 위험 경고

화씨 100도 이상의 체온, 추위를 느낌, 기침·두통·목 아픔·코막힘·근육통·피곤감, 어린이의 경우 구토·설사·복통·피로가 온다. 발병한 후 열은 약 2-4일로 끝 나지만 기침은 약 2 주일 동안

계속 될 수 있다. 보통 감기나 플루의 증상과 같은데 이 신종 플루의 경우 고열보다는 미열과 찬을 수 없는 기침이 좀 특이하다(기관지염 증상).

만일 심한 기침이 있으면 일단 신종플루로 생각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감기 증상들이 심해지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오면 위험한 경우에 도달한 증거로 본다. 이 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

\*움직이거나 안 움직여도 숨이 가빠진다. 기침이 계속되며 기침할 때 또는 안할 때 가슴이 아프다, 입이 마른다, 정신이 혼미하다, 기운이 없다, 어지럼



신종 플루 예방접종이 진료소와 약국에서 이미 시작됐다.

다, 계속 구토한다. \*또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른색이 들 때(cyanosis), 먹거나 마실 수 없을 때, 열이 재발하고 기침이 더 심해질 때는 위험한 상태다.

진단과 치료 방법

병리 실험실에서 콧물을 채취, 배양해 확실한 진단을 내린다. 결과는 약 3-5일 걸린다. 즉시 알 수 있는 테스트는 아직 없다. 의사는 반드시 누구나 다 테스트하지 않으며 또 할 필요가 없다. 확실한 진단 없이 증상만으로 치료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본 치료는 휴식을 하고 적절한 영양섭취 (입맛이 없어도 최소한 가볍고 단백질이 적은 국 같은 음식)를 하는 것이다. 충분한 수분섭취(물이나 음료수)로 목이나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와 나오는 만

큼의 소변이 나오도록 유지해야 할수중이 방지된다.

보통 평소와 건강한 성인들은 거의 전부가 치료 없이 완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쇠약한 환자나 노약한 사람들과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약성 플루는 예방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약품에 주의

일반적으로 대중(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기침약·진통제·해열제 등을 사용하지만 체온이 아주 높기 전에는 웬만하면 해열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는 아스피린을 쓰면 안되고 대신 타이레놀을 쓴다. 이는 Reye's Syndrome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살 이하 아이들에게는 기침이나 감기약을 되도록 안 쓰도록 한다.

일반 항생제(antibiotics)는 이 바이러스에 아무 소용 없으나 만일의 경우 합병증에 대응하는데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합병증을 대비해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쓰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약물(antiviral drugs)치료는 발병 2일 안에 시작했을 때 가장 유효하지만 늦게 치료가 시작돼도 효과가 있다.

치료 약물은 일반 항바이러스 (anti-virus) 약으로, zanamivir (렐렌자, Relenza) 아니면 oseltamivir (타미플루, Tamiflu)를 쓰는데 의사의 처방과 지시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H1N1 바이러스에 특정한 항바이러스약은 현재 따로 없고 지금 개발중이다.

증상없는 경우 예방적으로 약을 먹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 권하지 않는다.

현재 이런 약물치료를 저항성 있는 새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는 더 언급하지 않지만, 타미플루의 예

방적 남용이 그 원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합병증을 조심

이 플루의 합병증은 주로 폐렴·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장애가 문제가 되며 사망의 주요인이 된다. 따라서 호흡기 계통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지가 작은 어린이들은 각별히 조기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 또 면역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쇠약한 사람들도 적극적인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지난 봄부터 미국의 경우 약 100만 명이 걸려 그중 약 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신종 플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예방·준비·치료 대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발병하는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사망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플루 예방 접종

금년에는 두 가지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한다. 매년 나오는 일반 플루 예방 (Annual seasonal flu shot)은 신종 플루 (H1N1, Swine flu)에는 효과가 없으나 반드시 는 아니더라도 가능한한 지금 우선 맞도록 하고, 신종 플루 예방주사는 공급이 되는 대로 맞도록 한다.

개인에 따라 다음 순위대로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커진다. 예방 접종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임신부, 6개월에서 2살까지의 아이들, 6개월-2살 미만의 아이들을 돌봐 주는 사람, 의료업계에서 환자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은 6개월부터 24세까지의 어린이와 청년들, 25세부터 64세까지로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쇠약한 사람, 어린이를 취급하는 사람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꼭 맞도록 한다.

가족 특히 돼지를 취급하는 사람도 걸리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신종 플루 백신(예방주사)은 빠른 도시 지역에서는 현재 접종이 시작됐고 10월 중순이면 더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의 실험 결과가 예방주사는 나쁜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예방주사에 알러지가 없는 사람은 안심하고 맞을 수 있다고 한다.

신종 플루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도 면역력이 생긴다는 임상 결과가 국제적으로 보고되어 예방약이 모자라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증상없는 사람이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 약 (타미플루 등)을 먹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 의학적에서 추천하지 않고 있다. 광중보건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할 것이다.

건강 보조식품과 현대 의학

# 의학적 근거 없는 남용은 치명적 결과 초래

## ‘자연산 한약재’에서 중금속 발견, 의약품과 섞음질도



정영애, MD.  
(의대 졸업)  
Washtenaw County  
Medical Examiner

약용식물은 수백년 동안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사용돼 왔으며 나라 또는 지역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Phytomedicine, 미국에서는 Herbal medicine, Homeopathic medicine, 한국에서는 한약재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 구전으로 전해오던 민간요법이 지금은 전 세계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산업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서 암치료까지 여기에 의존하는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유지 혹은 노화방지라는 욕망에서 소위 말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남용 혹은 오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약용 식물은 자연산이라고 염려하지 않은 순수 물질로 믿고 있지만 요즈음은 여러나라에서 원재료를 수입, 이를 capsule 혹은 Pill로 제조하고 이것이 식품으로 허가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보기에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 질병 치유나 그 약효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건강제품이 전문 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단순한 식품으로 판매돼 약의 부작용 및 독성으로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현대 의학에서 실행하는 혈액 검사 판독을 방해하는 사례가 흔히 보고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약용식물 혹은 건강 보조식품 연간 소비량을 보면 유럽에서 \$7 Billion, 미국에서 1988년 \$200 Million, 1997년 \$27 Billion 이 소비됐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이 이런 건강제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연산이라 순수하고 의사 처방이 필요없으며 스스로 진단 처방하는 편리한 점이 있는데 다 남들이 ‘복통에는 무슨 약초가 잘 듣는다’는 등의 근거없는 소문에

의한 처방, 무조건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맹신, 그리고 터무니 없는 과대 상업광고 등이 아닌가 한다.

지나친 광고와 맹신이 어떤 일을 초래하느냐 하면 필자가 잘 아는 한국 중년 가정주부가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고 받았는데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주위 가족 친척들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치료를 고집하다 진단 후 2년만에 환자가 사망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한약 값이 병원 수술비보다 몇 배나 더 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얻은 결론은 유방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2년 밖에 살 수 없다는 것과 초기에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도 가능한 병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건 정규 한의과 대학이 인정된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의 보건행정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건강식품에 대한 국가의 규정

미국에서는 1994년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al Act에 의해 건강보조식품 및 약용 식물은 식품으로 허가되며 영국·Australia·Canada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Germany는 다르다. 약용식물이 건강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역사적인 사용유래가 있어야 하고 화학 그리고 약리학 Data가 첨부돼야 하며 임상·독물학적 연구 실적 외에도 Case report와 Epidemiological data가 첨부, German Commission E, Monograph의 승인을 받아야만 상품화될 수 있다.

전 세계를 통해 이 약용 식품의 사용 비중은 아직도 무한하며 새로운 제법과 생화학적 연구로 현대 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연구 개발 되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약의 50%가 이 생약에서 추출된 것이다. 예를 들면 Opium poppy에서 Morphine과 Codeine을 추출했고, 남미산 Red Cinchona tree에서 Malaria를 치료하는 Quinine, 정원에서 흔히 보는 Fox globe라는 꽃잎에서 심장병에 가장 많이 쓰이는 Digoxin, Digitoxine을 발견했다. Hodgkin's Disease의 90% 사망율을 90%의 생존율로 바꾸어 놓은 항암제 Vincristin, Vinblastin은 Madagascar Periwinkle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런 약들이 민간요법 혹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 사용되는 약과 다른 점은 현대 과학 기술로 필요한 물질만 추출해서 이를 동물실험, 그리고 엄밀한 인체실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력이 있는 용량 혹은 농도 조절을 해서 상품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약도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Arnica

유럽에서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피부에 멍이 들거나 발이나 손목을 삐었을 때 국소에 바르면 상처가 빨리 치유된다고 믿고 사용해 왔는데 이것을 내복약으로 사용했을 때는 장 점막에 심한 자극증상이 와서 설사와 구토증, 호흡 근육에 마비가 와서 호흡곤란 뿐 아니라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 급사하는 수가 있다.

이 식물의 Helenalin이라는 성분은 항생·진통작용이 있다고 민간

### 병원 허락없는 Arnica 복용 환자 사망 은행을 아스피린과 복용하면 뇌출혈

요법으로 사용해 왔는데 연구 결과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지금은 유럽시장에서 내복약으로 판매금지된 약이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예로 27세의 남자가 Michigan 대학병원에서 Ulcerative Colitis라는 병으로 대장 절제술을 받은 다음 날 환자 어머니가 면회시간에 와서 Homeopathic Medicine에서 처방했다는 Arnica와 Phosphorus라는 알약을 수술 상처가 빨리 치유 되라고 병원당국의 허락도 없이 환자에게 복용시켰다. 그 뒤 한 시간도 안돼 간호사가 와서 보니 호흡과 맥박이 중단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이틀간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다가 결국 사망한 예가 있다. 자연사가 아니라는 병원 판단에 따라 법의학 부검을 했는데 별 이상을 찾지 못하고 독물검사도 이틀간 정맥수액으로만 생명을 유지했으니 이상 물질이 혈액에서 발견되는 어려웠다.

### Ginseng (인삼)

Panax Ginseng (Korean or Asian Ginseng)과 Panax quinquefolis (American Ginseng), 그리고 Eleuthero Coccus (Siberian Ginseng)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Panax Ginseng은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는 인삼이고, Panax Quinquefolis는 미국산으로 과거 Indian들이 중국으로 수출 했으며 Eleuthero Coccus는 중국 북쪽과 Russia에서 자생하는 인삼이다.

인삼의 주성분은 Ginsenosides으로 이 속에는 13 종류의 Saponin glycosides가 있어 면역·소염작용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있다. 그러나 정신적 신체적 기능 향진에 관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당뇨병의 혈당을 내리기도 하지만 치료약으

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

인삼은 혈압을 높이고 혈액응고를 저하시키며 식물성 여성호르몬과 같은 물질이 있어 유방암 환자나 어린아이들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Licorice (감초)

한국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다.

Glycyrrhizic acid가 들어 있어 인체내 11- $\beta$ -hydroxy steroid dehydrogenase라는 효소를 파괴해서 혈중 Potassium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장기간 복용하면 근육을 마비시키고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한 남자 환자가 전립선 암으로 하루 한약 8팩을 2개월간 복용한 후 근육 마비가 와서 혈액검사한 결과 Hypokalemic myopathy, metabolic alkalosis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혈중 Potassium이 1.7 mEq/L (Normal level: 3.8-5.0 mEq/L)까지 저하된 일이 있다.

### Kelp (해초)

다시마·미역·김 속에는 많은 무기 물질과 Vitamins, 그리고 풍부한 요드(Iodine)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량 섭취하면 요드로 인한 갑상선 항진증이 올 수 있다.

건강한 72세의 여자가 몸에 좋다고 음식으로는 먹기 싫어 건강 보조 식품점에서 파는 Kelp tablet를 하루 4-6개를 1년간 복용하고 나니 몸에 이상증세가 와서 검사 결과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는데 이 약을 중단했더니 즉시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Case가 있었다. 이게 바로 건강보조식품이 용량과 농도를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Capsule 혹은 Tablet로 조제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예의 하나다.

산모가 미역을 Tablet가 아닌 미역국으로 한달간 먹어도 요드중독이 생긴 예는 보지 못했다. 마늘과 콩(Soy Bean)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를 Pill이나 Capsule로 조제해 판매하고 있는데 용량과 복용기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Dong Quai (당귀)

주로 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요즈음 한국에서는 음식물에도 이를 첨가한다고 한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Phytoestrogen)과 근육 이완제, 혈관 확장제의 약리 작용이 있어 오래 전부터 여성

생리통의 민간요법으로 사용해 왔다. 발암물질과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어 특히 유방암 환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Ginkgo Biloba (은행)

1200년부터 중국에서 약재로 사용해 왔는데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 손상된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기억상실 예방약으로 혹은 Alzheimer's Disease 치료제로 사용한다. 혈액 응고를 방지해서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나 Aspirin, Warfarin and Vitamin E와 같이 복용하면 뇌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같이 복용해서는 안된다.

### St. John's Wort (천지황)

미국인의 17%가 이 약을 사용하는데 식품으로 허가된 건강제품이 FDA 허가도 없이 우울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치료약이다.

식물 이름이 ST. JOHN으로 불리는 데는 오래된 설화가 있다. 옛날 St. John the Baptist가 로마 군인들로부터 쫓겨다니다 어느 집으로 숨어들어가는 걸 보고 군인이 그 집에 다 이 꽃을 꽃아 표시해놓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를 알고 집집마다 이 꽃을 꽃아 탈출을 성공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보아 이 약용 식물이 수천년 동안 인간의 생활 속에 친근하게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식물의 Hyperforin이라는 물질이 현재 우울증에 치료하는 Monoamine Oxidase Inhibitor(MAO) 혹은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RI)와 유사한 약리 작용이 있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거다.

그러나 의사가 처방한 항우울증 약과 같이 복용하면 상승작용이 있어 Serotonine Syndrome라는 심한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주성분인 Hyperforin이 인체 내에서 특별한 효소, Cytochrom P450, Cytochrom P3A4 and P-glycoprotein Drug transporter를 분비해 간에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복용한 생화학적 물질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작용이 있어 다른 약의 치료효과를 방해한다.

예를 들면 항면역약을 복용하는 장기이식 환자에서 이식이 실패될 수 있고 피임약 복용자에 임신하게 하며 Aspirin 혹은 다른 혈액응고 방지 약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Digoxin을 복용하는 심장병 환자에서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수술환자에서 마취 작용을 연장시켜 빨리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건강 보조식품과 현대 의학

<10 페이지에서 계속>

약용식물이 혈액 검사에 미치는 영향

많은 약용식물이 현대의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Immunoassay test 를 방해 내지 검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 이유는 약용식물에 있는 주성분 혹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물질과 Cross Reaction 이 일어나서 검사결과 판독에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알려진 약용식물 중에는 St. John's Wort, 인삼, 그리고 주로 한의학에서 심장병에 사용하는 약중 Chan Su (Toad skin gland), Lu-Shen Wan, Dan Shen (Salvia Millit-orrhiza) 등이다.

Immunoassay 는 다른 생화학적 물질 측정에도 사용되지만 인체에 투여된 약의 혈중 농도를 점검 하는데 많이 시행한다. 그 한 예로 심장병 환자에서 Digitalis 혈중농도를 정기적으로 검사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건강보조식품 혹은 한의학을 혼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약용식물로 인한 인체 내 생리 변화와 유독성

모든 약물이 주로 간에서 해독 내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약용식물중 간에 독성이 있는 한약제로는 당귀, 한의학에서 치료제로 처방하는 약중 Kava-Kava (수면제·정신안정제), Comfrey(신결석, 근육과 뼈 질환에 사용), Germander (체중저하), Borage (Rheumatoid, 고혈압), Mistletoe (암·심장강장제·소화제·신경안정제) 등이 현재 알려져 있다.

비만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Ephedra (마황)에는 Ephedrine, Pseudoephedrine 성분이 있어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비만증 환자가 본인의 혈압이 높은지 모르고 이 약을 계속 복용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예가 많이 보고돼 현재 미국에서는 이 약이 건강식품점에서 판매금지돼 있다.

약용식물이 자연산이라 순수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꼭 상기시킬 점이 있는데, California 에 있는 254 개의 Herbal medicine Store 중 24 Store 에서 한약제 속에서 수은·비스, 그리고 납성분이 발견됐고 인도에서 수입하는 약제 속에도 납과 다른 중금속이 발견됐으며 브라질에서 오는 수입품 중에서도 카드뮴·수은·납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주로 환경 오염과 특수한 토질에서 오염됐다는 연구 보고다.

대만에서 2069 의 한약 또는 보약을 분석 했는데 이 중 23.7% 가 다음과 같은 현대 의약품과 섞음질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가장 많은 것이 Caffeine, 다음으

로는 Acetaminophen (Tylenol), Indomethacin, Hydrochlorothiazide, Prednison, Fenfloramine 의 순이었다.

권하고 하고 싶은 말

보약의 필요성과 그 약리 작용은 현대의학 으로는 설명이 안되고 무조건 몸에 좋은 약이라는 맹신 때문에 아직도 보약이라는 것이 판매되고 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원인을 밝혀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조기 치료하는 게 현대의학의 원칙이다. 그런 데도 현대 과학과 의학을 불신하고 원시 시대의 민간요법에 집착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생명을 건 일종의 도박행위며 시대적 역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의사가 처방하는 제약회사 약과 약용식물 혹은 한약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수술환자 그리고 혈액 검사

를 할 때는 적어도 2주 내지 3주 전에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약용식물이 자연산이라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며 약용식물은 Crude product 이다.

이 속에는 치료약 성분도 있겠지만 인체에 독성분도 포함돼 있다는 걸 상기 시키고 싶다.

현대 의학을 하는 의사들도 환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약용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

식이 필요하며 대중교육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 내지 약용식물이 식품으로 허가되는 현행 규정법이 제조정해야 하며 미국 Institute of Medicine(IOM)도 이를 권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화된 제조 규정이 없으면 임상 혹은 약용 식물에 대한 화학적 연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결산 보고서  
(2008년 7월 1일 ~ 2009년 6월 30일)

	일반기금 (Operating Fund)	종신이사회기금 (Standing Committee's Fund)	모교발전기금 (Million Dollar Fund)	합계 (Total Fur)
<b>수입</b>				
관악후원회비	\$94,151.00			\$94,151
회비	88,609.00			88,609
종신이사회비	16,500.00			16,500
모교발전기금			\$38,000.00	38,000
인명록주문	50,316.05			50,316
광고수입 (동창회보)	23,030.00			23,030
이자수입		\$8,213.54	6,893.00	15,106
황산덕 장학기금	25,000.00			25,000
장학발달찬조금	800.00			800
종신이사회기금으로 이체	(22,500.00)	22,500.00		
총수입	275,906.05	30,713.54	44,893.00	351,512
<b>지출</b>				
회보편집 및 인쇄비	63,326.22			63,326
우송료	46,195.56			46,195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	26,200.00			26,200
사무실 임차료	13,200.00			13,200
사무실 인건비	3,000.00			3,000
인쇄비	4,151.08			4,151
전화료	5,735.89			5,735
사무실용품	1,214.18			1,214
컴퓨터 서비스	120.00			120
경조비	1,600.00			1,600
광고비	6,640.00			6,640
본국 총 동창회 분담금	11,000.00			11,000
회의비	3,117.97			3,117
공과금	120.00			120
황산덕 장학금 본국 송금	25,000.00			25,000
장학발달기금 전달	800.00			800
은행수수료	827.05		128.00	955
상패	1,950.00			1,950
사진 및 비디오	2,000.00			2,000
회계사비	500.00			500
인명록 디자인 편집비	25,000.00			25,000
인명록 출판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			55,000
발전기금으로 모교에 송금			38,000.00	38,000
예일대 서머 프로그램 초청비용			28,492.00	28,492
총지출	296,697.95	0	66,620.00	363,317
연간손익	(20,791.90)	30,713.54	(21,727.00)	(11,805)
작년도 이월금 (7/1/08)	22,473.17	101,466.00	181,707.00	305,646
연말 잔고 (6/30/09)	\$ 1,681.27	\$132,179.54	\$159,980.00	\$293,840

Prepared by  
Joo Sun Hong, Treasurer  
September 15, 2009

Compiled by  
Changsoo Kim, Auditor  
September 15, 2009

동문 수상(隨想)

36년 이민 의료 외길에 고국 향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정정수(의대 62년 졸)

내가 골프 클럽에 속해 있는 'Saucon Valley Country Club'에서 지난 7월 LPGA US Open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18홀에서 지은희 선수가 긴 버디 퍼팅을 성공시켜 참석한 우리 동포들과 TV중계를 본 국민의 열광을 받으며 58만 5천달러의 상금과 최고 권위의 우승 컵을 쥐고 흥분하던 모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당시 일주일 내내(연습라운드 월·화·수)나는 의료 봉사팀, 아내는 한국어 통역 안내 봉사팀에다가 부근 여러 친지 동포들과 만남으로 정말 바빴다.

전 세계 156명의 우수 여자 골퍼 중 34명이 한국 선수로 1998년 박세리, 2005년 김주연, 2008년 박인비, 2009년 지은희가 우승을 차지했다. 정말 그 조그마한 우리 나라 한국 여성들의 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우리 클럽에서 1992년과 2000년도 등 두 번 'US Senior Open'을 열었는데 한국 선수는 전혀 없이 늙은이들의 스윙 폼도 그랬는데, 그 애뒀하고 아름다운 폼에 세련된 골프 옷을 입은 우리 선수들은 보기에 도 좋았다.

게다가 나는 드라이버로도 좀 제 못 올리는 굉장한 Uphill 170야드 Par 3홀을 체중 110~120파운드의 조그마한 한국 선수들이 4~5번 아이언으로도 유연한 스윙으로 가렷게 올려놓는 모습은 경이로웠다. 이런 모습을 내 의료팀 버스가 있는 홀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며, 특히 연습 라운드 3일 동안에는 따라온 한국 부모님들과

지난 7월 US여자 골프 오픈에서 우승한 지은희 선수



이런 저런 고충과 영광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선수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얼마 되지 않은 동포 관람객이 있는 데도 퍼팅이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아이고~" 하는 한국 말이 여기 저기서 튀어나왔다.

마지막 날 마지막 18번 홀에서 지은희 양이 긴 버디 팻을 넣어 이기는 순간 여기 저기서 한국 말의 함성이 터지고 기뻐하던 광경은 미국에서 몇 십년 살았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특히 연습 라운드 이틀째 신지에 선수가 온 몸에 발진이 생겨 가려워 이틀을 잠을 자지 못했다는 말에 한국어 통역과 봉사팀을 맡은 아내가 친한 피부과 의사한테 데려가서 스테로이드 약 처방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도 소변 검사에서 괜찮을 것인지 USGA간부들에게 진화해서 허락받는 과정에는 약간 어려운 의학용어라 큰 도움을 주었다.

골프 뿐 아니라 한 때 축구의 붉은 악마가 휩쓸 때는 온 동포 사회가 밤잠을 설쳤다.

특히 올림픽 때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를 비롯해 김연아



연습 라운드 도중 신지에 선수(오른쪽)가 발진이 생겨 우리 부부와 더 가까워졌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좋아해서 들던 '60 Minutes 20/20, National Geography, History Channel, Travel Channel' 등은 뒤로 하고 한국 더큐멘터리

친구 중국 부인들이 모일 때는 자기들끼리 중국말로 수다를 떨어대 소외감이 생겨 자기는 국제 문화가 다른 민족끼리의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특히 절감한다며 하소연하고

국 친구들, 한국 음식, 한국 문화에 더 접촉하게 되며, 한국 여행도 자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TV프로그램으로는 '6시 내고향'을 자주 보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남해안의 한국 섬들에서 낚시하고 생선회와 찌개를 먹는 정취는 이탈리아 Amalfi Coast나 Capri 섬에서 피자나 파스타를 먹으면서 하는 여행보다 더 그리워지고 기다려진다.

플로리다 말코섬 해변 콘도에서 20명 남짓 한국 친구들과 한 달에 두 번 회식하고 골프치고 낚시다니는 재미보다 한 두달 한국에 나가 남해안 섬들을 돌아다니며 찌개먹고 생선회를 먹으며 우리 한국말을 하는 여행이 더 기다려져 꼭 몇 번씩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 둘은 각각 43세와 41세로 모두 이곳에서 태어나 손자들 4명도 어릴 때는 미국 음식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 아내가 손자 손녀 장조림·김·두부찌개 해대기에 바쁘니 내 피 속에 흐르는 배달민족성 때문인지 어쨌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나한테는 적중하고 있는 셈이다.

아내와 딸들은 뉴욕 맨허튼의 사우나 마사지 패밀리를 하러 같이 다니니 정말 믿기 어렵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동문 여러 분들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해하기 바라며 건강하셔서 노년을 성취보다는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의 어려운 시절의 보상을 조금이라도 남은 여생에서 돌려받고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글을 마친다.

“미국서 40여 년 살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고국에 가 있어” “유럽여행보다 한국 남해안 돌며 생선회에 찌개먹는 재미가 훨씬 좋아”

선수의 우아한 기량, 박지성·박찬호 선수 등에 대한 우리 동포들의 관심은 대단하고 신나게 해준다. 이들은 모두 남다른 각고의 노력 끝에 이같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와 연관된 이야기로, 나는 1962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3년간 해군 군의관을 복무한 뒤 1965년 28세의 나이로 미국에 왔다. 당시 서툴다 못해 미국 사람들이 못알아듣는 영어에 설움과 괘시를 받아가면서도 끈질기게 'American Board of Pediatrics'와 'American Board of Anesthesiology Double Board'를 뽀스하고 한국 사람이 살지 않았던 펜실베이니아 독일인 마을 Allentown에서 37년간을 소아과 의사, 소아 마취과 의사로서 개업하다가 2년 전 은퇴했다.

지금 72세의 나이로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은 내 생애에 이제는 한국 방송, 한국 드라마에 한국 더큐멘터리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 오래 전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았을 때는 한국 말도 많이 변해 빨리 말하면 3분의 2 정도 밖에 알아듣지 못

에 심취해서 녹음까지 해두고 있다.

예로 같은 소재로 베트남을 취재해도 어떻게 빈민들에게 사혜를 하는지 상세히 안에 들어가 세세한 생활상을 적어오고 있다.

'동물의 쌍불기'라는 1~2편으로 된 더큐멘터리에는 이 세상 동물들의 교미 장면을 찍었는데 오리 쌍이 물에서 벌이는 일, 당나귀가 벌이는 일 등을 신기하게 모두 찍은 것이다. 그런데 해설하는 사람의 거침없는 한국말 어투는 너무나 해학적이고 직설적인지 보는 사람의 낮이 뜨거워질 정도지만 재미도 있어 미국 더큐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이민은 모 의과대학 학장 어머니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영어를 곧잘 했었는데 치매가 걸리고 난 후 영어는 짝 잊어버리고 이탈리아 말만 한다고 해서 세월의 무상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내가 아는 한국 여자와 중국인 의사 부부는 아들 딸 낳고 잘사는 데 부인은 한국 비디오에 한국 음식에 심취하다보니 남편

있다.

최근 동구여행 때 가이드 이야기로는 친한 친구가 어머니를 따라 독일에 가서 독일 여성과 결혼해 아들 딸을 낳아 잘 살았는데 자식이 모두 출가해서 'Empty Nest Syndrome'이 찾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 한국 음식, 한류 열풍이 불어 이 친구도 하루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청국장이 먹고 싶어 끓여서 혼자 따름을 흘리면서 먹고 있는 데 독일인 아내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 아내는 그 냄새에 "You Pig. Get out of my house!"라는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는데 이 언행에 그간 쌓였던 분노에 불이 당겨져서 그 날로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위에 국제결혼한 친구나 선배들 중에는 정말 아름답게 노년을 잘 지내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문화의 차이와 'Empty Nest Syndrome'의 충격을 못이겨 이혼하고 다시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많이 보았다. 나도 그간 여행을 많이 해서 웬만한 세계 고적들을 다 보았는데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 한

고국동문 동정

수상·인사·행사

수상



▶안병원(성악50졸 한국복지재단 토론토 후원회장)=8월 8일 미주동포 후원재단이 한국인의 명예를 높인 동포에게 주는 자랑스런 한국인상 수상.



▶이달우(전기공학4853 KC코트렐 회장)=미 텍사스주에서 열린 WPCA 학회에서 'Round Table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이병훈(의학6066 대한의사협회 고문, 한국 100세 인연협회 총재)=최근 한국라이온스 협회로부터 라이온 최고 영예인 무궁화 사자대상(금장)과 국제협회장 감사장 수상.



▶안국정(사학6370 모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3일 제36회 한국방송대상 공로상 수상.



▶김성수(응용화학6468 인하대 교수)=8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화학회 총회 축하분야 최다 인용 논문상 수상.



▶성상철(의학6773 모교 병원장)=지난 8월 19일 대한민국의보건의료인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보건산업인상(특별상) 수상.

인사



▶현소환(정치5761 연합통신 전사장, 뉴스앤뉴스 대표)=7월 29일 임기 2년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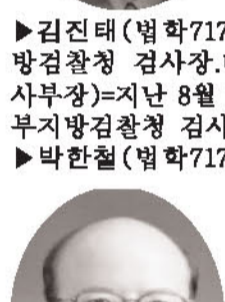
▶한흥택(기계공학64졸 미국 UCLA 석좌교수)=지난 7월 24일 임기 3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에 선임.



▶박명민(체육교육6266 고려대 교수, 동문골프대회 경기위원장)=지난 8월 2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정년퇴임.



▶박남희(회화7074 경북대 교수)=최근 근대예술품에 대한 연구서인 '전국 여교수 연합회 제11대 회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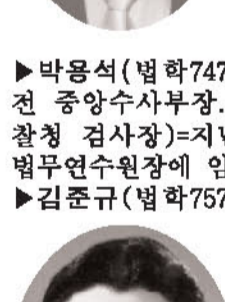
▶김진태(법학7175 인천광역시 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지난 8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박한철(법학7175 대검찰청 전 공안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지난 8월 1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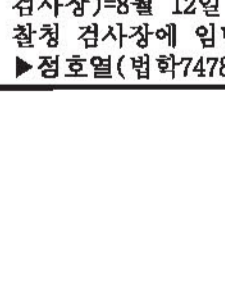
▶김우룡(신대원7173 한양대 석좌교수,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8월 10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선출.



▶박승준(중문7478 조선일보 중국담당 전문기자, 본보 논설위원)=9월 1일 조선일보 북, 중 전략문제 연구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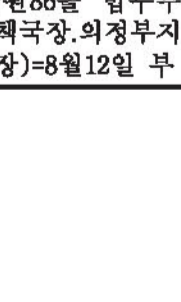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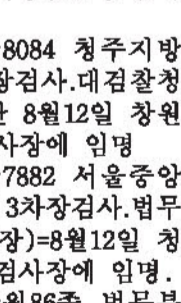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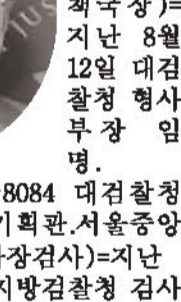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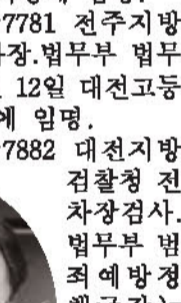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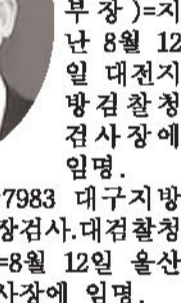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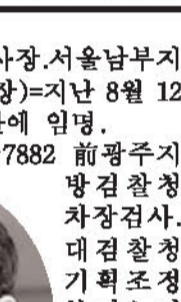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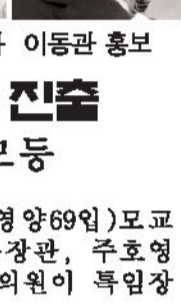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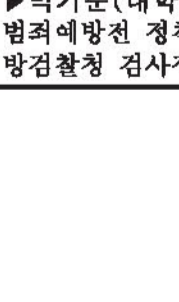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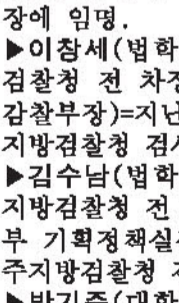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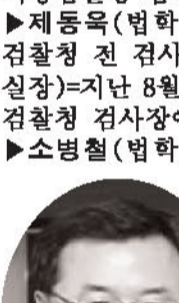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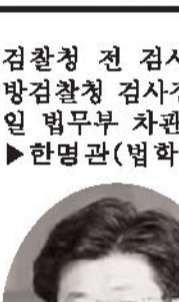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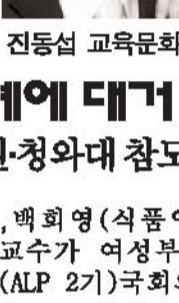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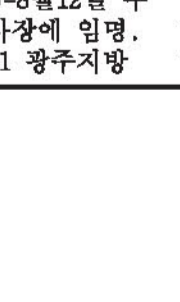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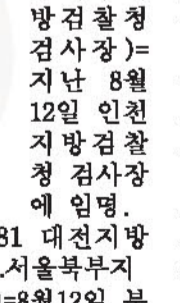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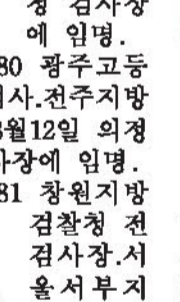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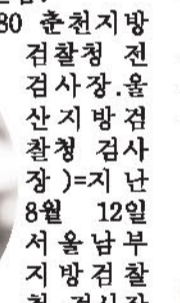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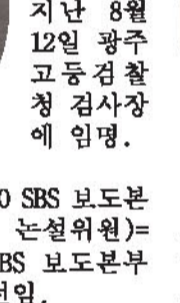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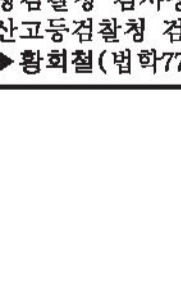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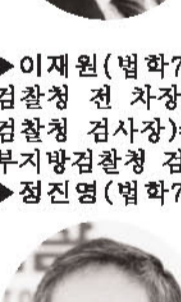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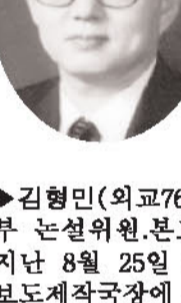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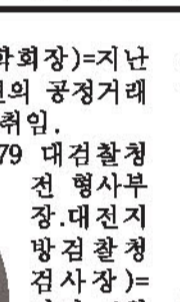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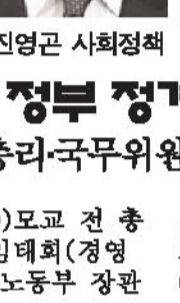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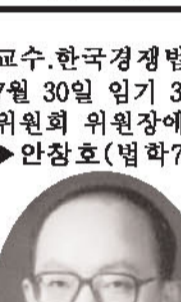
▶박용석(법학7478 대검찰청 전 중앙수사부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지난 8월 12일 법무연수원장에 임명.



▶김준규(법학7579 국제검사협회 부회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지난 8월 20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 취임.



▶박명렬(법학7579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전 검사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8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관에 내정되는 등 동문들이 대거 정부 정계에 진출했다. 정 총리 후보자는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 사회과학협회장 등을 거쳐 현재 모교 경제학부 교수다. 임 장관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다. 백 장관은 대한가정학회 회장, 한국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거쳤다. 주 장관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을 지냈다. 한편 청와대 개편에 따라 민정수석에 권재진(법학7276) 전 서울고검장, 사회정책수석 진영곤(경영7579)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문화 수석에 이동섭(교육7276) 한국교육개발원장, 홍보수석에 이동관(외교7681) 대변인이 임명됐다. 또 경제특보에 강만수(법학6569)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과학기술특보에 이현구(화학공학586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IT특보에 오해석(응용수학7175) 경원대학교수가 기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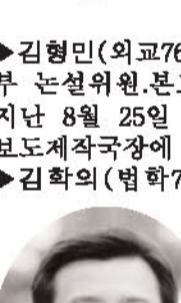
동문을 정부 정계에 대거 진출 국무총리·국무위원·청와대 참모 등

정운찬(경제6670) 모교 전 총장이 국무총리, 임태희(경영7680) 국회의원이 노동부 장관, 백희영(식품영양699) 모교 교수가 여성부장관, 주호영(ALP 2기) 국회의원이 특임장

교수,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지난 7월 30일 임기 3년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안참호(법학7579 대검찰청 전 형사부장, 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장)=지난 8월 12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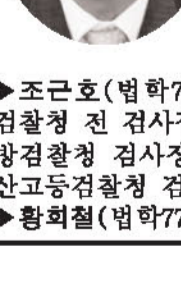
▶김형민(외교7680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25일 SBS 보도본부 보도제작국장에 선임.



▶김학의(법학7680 춘천지방검찰청 전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지난 8월 1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이재원(법학7680 광주고등검찰청 전 차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8월 1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정진명(법학7781 창원지방검찰청 전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지난 8월 12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조근호(법학7781 대전지방검찰청 전 검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8월 12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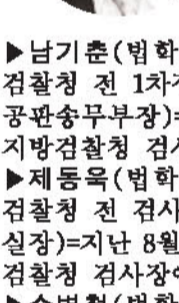


▶황희철(법학7781 광주지방

검찰청 전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지난 8월 12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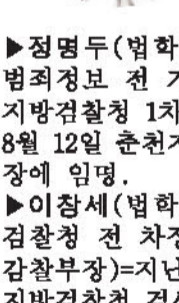
▶한명관(법학7882 前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지난 8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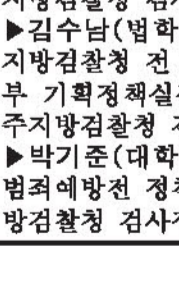
▶남기춘(법학7983 대구지방검찰청 전 1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8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제동목(법학7781 전주지방검찰청 전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지난 8월 12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소병철(법학7882 대전지방검찰청 전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지난 8월 12일 대검찰청 형사부장 임명.



▶정명두(법학8084 대검찰청 범죄정보 전 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지난 8월 12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이참세(법학8084 청주지방검찰청 전 차장검사, 대검찰청 감찰부장)=지난 8월 12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김수남(법학788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정책실장)=8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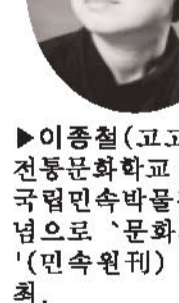
▶설근태(행대원889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지난 8월 13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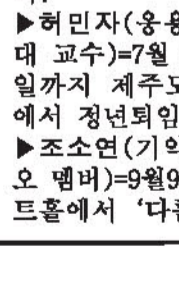
▶유동준(잠사학5660 한국담미사료협회 회장, 晶月 나혜석기념사업회 회장, 부운장학회 이사장)=8월 21일 하반기 장학생 181명에게 2억1천만원 전달.



▶김재임(회화5660 한국미협 회원, 서양화가)=7월 116일 말레이시아 루키스화랑 국제기독인들의 전시회 작품.



▶이종철(고교인류6266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8월 25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임 기념으로 '문화의 길을 걸으며'(민속원刊) 출판기념회 개최.



▶이민자(응용미술6367 제주대 교수)=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 제주문예회관에서 정년퇴임 기념전 개최.



▶조소연(기악9498 클랑트리오 멤버)=9월 9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다름'이란 주제로

### 신간 안내



장편 소설 출판 기념회에 모인 워싱턴의 문인들. 앞줄 앉은 이 좌측 두번째가 이영목 동문

## 이영목 미주 전 동창회장 소설 출판 '워싱턴 달동네'로 인종 초월한 삶 묘사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 8대 회장 (2005~2006년)을 역임한 이영목 동문(공 59일·사진)이 첫 장편소설 '워싱턴 달동네'를 출판, 기념회가 9월 12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레옥 연회장 에서 열렸다.

워싱턴 문인회 회장이기도 한 이 동문의 첫 장편소설은 '세계 정치의 수도'에서도 혐악하기로 유명한 베닝 로드 주변 '워싱턴 달동네'에서 펼쳐지는 인종을 초월한 인간들의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묘사한다.

박현숙 워싱턴 문인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출판 축하 행사에서 조용천 총영사는 "이번 출판은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아가 미주 한인 문학인들의 저력을 보여준 뜻 깊은 일"이라며 "워싱턴 문인들의 활동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닌, 글을 통한 동포 사회의 체제 남기기"라며 후세들이 한인들의 삶과 역사를 글 을 통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권귀순 미주 시 문학회 회장이 축사를 낭독하고 시인이자 평론가 임창현씨는 축사에서 "6년 전 발표 된 이영목씨의 단편 소설 모음집 '우리들의 초상화'가 강론이었다면 이번 '워싱턴 달동네'는 총론"이라며 "다문화 민족의 화해와 화평을 녹여낸 책은 소설의 재미 를 쉽게 만나게 해준다"고 말했다.

다. 또 문학 평론가 명계웅씨(전 시카고 문인회장)도 "앞으로 다 문화사회 속에서 한인과 타민족 간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준 글" 이라고 평했다.

독후감을 말한 구수현(워싱턴 DC 시장실, 아태담당 국장)씨와 허권(한국 현대시인협회 지부장) 씨 등은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 책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 을 만큼 빠른 전개와 흥미진진한 줄거리에 빠져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답사에 나선 이영목 회장은 "미국 수도 워싱턴의 삶, 살인과 범죄가 난무하는 곳, 비참한 동네 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고 우악스런 삶의 몸부림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를 꺼내고 싶었다"며 "이 소설 속에는 그 동안 만나왔던 워싱턴 한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 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번도 공모전에 작품을 내 본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 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소설을 쓰게 됐다"는 그는 "이 책을 통해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인종간의 벽을 허무는데 조금 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소설 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줬던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동양인 안면 성형 수술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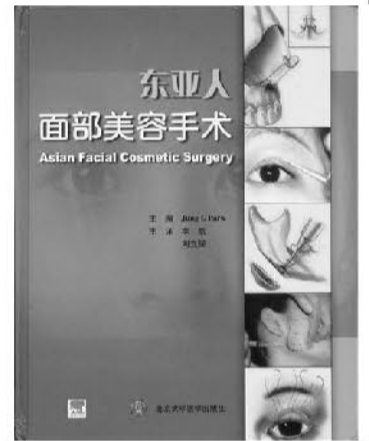
### 박정일 동문, 영어·중국어·한국어 출판

박정일 동문(의대 67년 졸업)이 2007년에 영문으로 출판한 동양인 얼굴 성형 수술 전문서 적의 중국어 번역판이 지난 7 월 북경대 의과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했다.

박 동문은 동양인과 백인들의

박 동문은 이 책을 저술한 동기에 대해 "서양인의 얼굴에 관한 아이디어나 개념으로 동양인의 안면 성형을 하면 안 되는데 의 대에서 동양인의 얼굴에 관해 별도로 배우는 것이 없고 교과 서도 없는 고충을 해소하려고 텍스트 북 저술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 책은 2008년 11월 한국어 로도 번역되었는데 의과대 학생 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렵고 성형 전문 수련의사나 현재 성형을 시술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하 다고 한다.



얼굴 구조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20년전에는 거의 없었던 점에 고심하다가 이 부 면에 관한 전문 서적을 저술하 기로 결심하고 약 10년 동안 준비하여 2007년 10월 영어로 출판, 초판이 매진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436페이지, 44개 챕터 로 된 하드 커버 서적으로 750 여점의 컬러 사진-삽화를 곁들 여 수술 요람(surgical atlas) 형 식으로 되어 있다(가격 \$250).

박 동문은 서울 의대를 졸업한 1967년부터 5년간 서울의대 병 원에서 이비인후과 레지던트로 시작, 1975년에는 어린이들의 비후염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모교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 다. 2년간 중앙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77년에 도미한 그는 90년대 들어 안면 성형 수술을 연구, 시술하기 시작했다.

박 동문은 이 책이 전문가들사 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 며 이번 가을에 북경에서 중국 어 번역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 는 등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박정일 동문은 1991년부터 미국 안면성형학회의 이사, 성형 전문의 시험 출제위원, 자격 심 의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인디애나 민스터에서 은퇴하여 인디애나 의대 노스웨스턴 분교 의과 명예교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소프라노 김반다·김주영, 테너 채혁 씨 등 이 순서를 맡아 축하를 불렀다.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영 목 동문은 경기고(59년)와 서울 대 공대(63년)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해 복무한 뒤 중위로 예편했다.

1979년 워싱턴에 이민왔으며 섬유 수출회사 근무, 식품제조

와 도매업 등을 하는 동안 2003 년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 선으로 단편 소설모음집 '우리 들의 초상화'를 출간하는 한편 워싱턴 중앙일보의 칼럼리스트 로도 활동했다.

이 책은 9월 초부터 서울 교보, 영풍 문고를 비롯해 LA 샘터 서 럽, 워싱턴 기독교문화사에서 판 매되기 시작했다.

##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서를 부유하게 하는 개인 문학작품 (시, 수필, 기행문, 단편 소설 등)과 미술, 음악 해설 등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하여 독자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 타자로 하시어 e메일로 보내시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 미주 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연락처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지역 소식



# 서울대병원 LA Office 고객 600명 넘어 '건강지킴이'

## 10월27일 개소 1주년 기념 및 건강심포지엄

미주 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해 11월20일 문을 연 서울대 병원 Health Planner LA Office가 개소 1주년을 맞아 10월 27일 기념 및 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장소는 Palace Hotel(745 S Oxford Ave.LA로 사전 등록 문의 전화는 213-785-8510이다.

서울대 병원 LA Office는 서울대 병원 및 강남센터와 연계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및 건강진단 예약,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개소 이후 이미 600명의 미주 동포가 이를 통해 서울대 병원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오고 있다.

### 서울대 병원 진료 연계

암(위암·대장암·간암·췌장암·유방암·자궁암·갑상

선암·전립선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 연계와 감마나이프(Gamma Knife)를 이용한 뇌종양 및 뇌혈관 질환 수술 등을 문의할 수 있다.

또 미국에서의 진료기록을 방문·우편·Fax등으로 보내면 해당 전문 진료 예약을 진행해 주고 있다.예상진료비,입원 및 수술비 전적도 안내해준다

###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서울대 병원 강남센터 http://healthcare.snub.org)는 최신 의료장비로 하루 만에 전신상태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명품건강검진센터다.

정확한 조기진단으로 환자를 신속히 서울대 병원(www.snub.org) 또는 분당 서울대 병원

(http://www.snub.org)으로 연계해 주고 있다.

LA Office 상주 간호사가 고객의 연령, 과거 병력,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개인 맞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국내 체류 일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해준다.

### 미주 진료협력 회원 모집

대상은 미주지역 진료협력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모든 의사로 미주 진료협력 회원이 되면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미주에서 Follow Up이 필요한 환자를 연계해드린다.

서울대 병원 건강검진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의 미주 추후 관리를 의뢰드린다.

또한 서울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를 의뢰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 진료협력 회원신청 방법

서울대 병원 LA Office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보내면 회원으로 등록된다.

서울대 의과대학 및 의국 동문의 경우 회원 신청시 협력의사로 위촉해드린다.

▶연락처 = 3699 Wilshire Blvd. Suite1240, LA, CA90010 전화:213-785-8510 Toll Free: 866-204-2942

▶서울대 총동창회원 종합건강진단비 10% 감면(서울대 병원 강남센터)

▶서울대 총동창회원=회원 및 배우자, 회원의 직계존비속



# 오홍조 전 회장 부인 '에바 조' 국제사진전서 자연섹터 1위

남가주 및 미주 동창회 전 회장 오홍조(치과 의사) 동문의 부인 에바 오(사진) 씨가 전 세계 사진작가들의 국제 사진전에서 아마추어 부문 '자연' 섹터 분야에서 1위(아래 사진)를 차지했다.

에바 오씨는 7년여 전부터 취미로 오 전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뜻밖의 큰 상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 전 회장도 사진촬영 경력이 30년이 넘는 프로급 아마추어이다.

이 국제사진전(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은 올해 7회 차로 이번 대회에는 세계 104개국에서 1만8천여 명이 출품했을 정도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오씨가 1위를 차지한 작품은 'Up&Down'. 유타주 동굴 안에서 빛을 담아낸 것이다.

출품자의 3분의 2는 프로, 나머지는 아마추어 작가들인데 에바 오씨는 아마추어 부문 '자연' 주제 분야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것. 전체 입상자 가운데 한인은 오씨가 유일하다.

작품은 유타주 엔텔롭 캐년의 한 동굴 속에서 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작품 제목은 'Up & Down'.



오씨는 "그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 해볼 겸 출품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인정을 받을 줄 몰랐다"고 겸손해 했다.

부부는 매월 2박3일 정도 출사를 즐기며 지난 2월 한인타운 비전아트홀에서 부부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부부는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아치스 캐년, 모뉴먼트 밸리, 그랜드 캐년을 연결하는 소위 '그랜드 서클'을 1년에 돌며 자연풍광을 앵글에 담은 도전을 하고 있다.

에바 오씨는 "부부가 함께 여행하며 사진찍는 취미를 공유하다 보니 서로 대화도 많아지고 심신이 건강해져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Acropolis Times>



지역 동창회 소식 | 남가주·워싱턴·밴쿠버·덴버

**남가주 동창회**  
**2박3일 환상적 가족캠핑계획**

9월19일 Strawberry Farms Golf Club에서 골프대회를 가졌다.  
“골프장도 좋았고(초보자엔 쪼까 짜증나죠이~), 특히 저녁 스테이크가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다는 평이고, 근사한 클럽 하우스에서 마시는 막걸리 또한 잊을 수 없더군요. 다들 수고 하였고, 뒤풀이의 화기에 애한 모습 정말 자랑하고픈 정경이었습니다. 104명의 예약자 중 불가피한 2명을 빼곤 모두 나타난 책임성도 돋보였습니다. 주최측과 참가자들이 하나된 멋진 이벤트였습니다.” <이원영>  
26일(토)에는 커뮤니티 서비스 행사, 그 다음 주인 10월 2-4일 Big Bear 근처의 Camp La Verne에서 동창회 가족 캠핑 행사가 계획돼 있다.

이는 풍광이 수려하기로 유명하고 또 가장 높은 산(Mt. San Geronimo 11,500 ft)의 Big Bear 남쪽 Barton Flat에서 열린다. 인근에 레이크도 있어 물놀이와 낚시, 등산 등 놀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하다.  
이 행사는 해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동문들은 샤워, 미팅 룸, 실비가 있는 Camp La Verne 에 모여 2박 3일 간 동문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건강과 우정을 다지고 대 자연의 정기를 만끽하는 행사다.  
이번에는 번거로운 텐트 캠핑이 아니라 랫지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며, 식사도 현지 랫지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창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해결돼, 동문들은 침낭만 가져오면 되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프로그램이다. <Acropolis Times>

↓지난 7월4일 독립기념일 연휴 당시 83 동기회가 Paloma Mountain State Park에서 가족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다



워싱턴주 시애틀 동창회 등산회원들이 산행 중 한 자리에 모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워싱턴주 동창회**  
**산행·시니어모임·골프 등 가을행사**

워싱턴 동창회에서는 동반 여행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는 스노우 레이크로 산행을 다녀왔다.  
산행 거리는 약 8마일로 오전 9시 집합해 오후 3시에 돌아온 비교적 짧은 코스였다. 따라서 처음 산행을 하는 동문들이라 하면 별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8월이라 땀은 다 녹아서 없고 초목과 맑은 호수가 안개에 가려서 신비감을 더했다.  
올해의 두 차례 마지막 산행으로 9월 20일 Sunrise of Mt

Rainier와 26일 Mt. Rainier Sunrise 에 다녀왔다.  
Sunrise는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산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9월12일 Senior Club 주최 월례 세미나 친목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Mrs. 김재훈께서 클래식 음악 감상의 기초 지식에 관해서 참고가 되는 음악 이야기가 있었다.  
다음 10월 10일 모임은 Lake Hills Library에서 10시부터 1시

까지 예약돼 있다.  
금년 마지막 Senior Club 모임인 11월 14일은 Mercer Island Library에서 10시부터 1시까지다.  
올해 마지막 골프대회를 9월 26일 Walter Hall Golf Course)에서 열었다.  
또한 동창회에서는 내년 가을 예정으로 단체 한국방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행 Unibank 적금형 적립구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승택 (수의'75)>

**덴버 동창회**  
**전임 신임 회장단 인수인계**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아 수고해준 강창운 동문이 임기의 마지막이 되는 모임을 주선해 지난 6월 13일(토) 강동문 자택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2008년 연말 동창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전남인 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수고해주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김재권 동문과 박혜윤 동문이 각각 부회장과 총무직을 계속해서 맡아 주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회장단의 보고와 새 회장단 사무 인수인계가 있었다.  
전남인 신임회장은 어려운 때 동문회장의 증책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동문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 대외적 이미지보다는 동문 상호간 친목과 이해 증진에 주력해서

로에게 지원한 응달샘 같은 역할이 되도록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창회장=전남인(Nam-In)

↓강창운 전 회장 자택에서 동문 회원들이 한 장면 '찰칵' 했다



shon)njhons@msn.com  
719-592-0037  
부 회장=김재권 (Jay Kim)  
kias3750@yahoo.com 719-548-5034.  
총무=박혜윤 (Heayoon Park)  
heayoon@comcast.net 303-790-6037  
http://www.snumc1965.net

**밴쿠버 동창회**  
**‘원로선배 초청의 밤’ 예정**

10월 1일 오후 플라멩고 중식집에서 2009년 ‘원로 선배 초청의 밤’ 행사를 갖는다.  
54학번 이상의 원로 선배들을 모시는 이 행사는 후배 동문들이 선배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치러지는 행사다.  
매년 많은 후배 동문들의 협조로 이 행사가 뜻있게,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올해도 많은 후배 동문들이 참석, 원로 선배들과 즐거운 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9월7일 치러진 제28회 대학연합 골프 대회에서 오강남 회장을 비롯, 총 18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동창회가 간담의 차이로 입상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들 모교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다.  
총 150명의 선수들이 각 대학의 명예를 걸고 시합한 결과 1위 연세대, 2위 성균관대, 3위는 인하대가 차지했다.  
우리 서울대는 대회 후 치러진 랫풀이에서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추천에 당첨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비록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최고령으로 대회를 빛내 주신 조관기 동문, 멀리 한국에서 오셔서 미처 시차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전해 주신 송재조 동문 등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부호>



지역 동창회 소식

시카고



김영호 부회장 자택에서 열린 임원회에서 임원들이 안건에 대해 열심히 토의 중이다

시카고 동창회

부부동반 제4차 임원회의 열어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 등 행사와 연말총회 등 토의

시카고 지역 동창회 제 4차 임원회의가 지난 9월 12일(토) 김영호 부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14명의 임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석사와 권

교를 겸한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임원들은 10월10일의 제2차 이사회에 대한 준비와 14일로 예정된 '꿈을 심는 가을 음악회'의 진행에 대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11월29일 열린 연말 총회 및 파티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추계 골프대회 성황리 마쳐

해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골프대회가 지난 8월29일 33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Oak Brook의 Willow Crest Golf Club에서 열렸다. 화씨 73도로 햇볕이 거의 없는 약간 흐린 날씨라 특히 동문 부인들에게는 최상의 골프기후조건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Net Champion을 차지한 임현재 동문(의대 59입)은 멀리 인디애나 사우스

벤드에서 참석한 데다 69세의 노익장(?)을 과시해 젊은 동문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호리호리한 체격의 위장호 동문이 장타상을 차지해 동문들을 놀라게 했다. 시험 후 Korea Garden에서 가진 만찬장에는 40여 명의 동문들이 모여 오붓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이날 부분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남성부
  - ▶Gross Champion = 전현일
  - ▶Net Champion = 임현재
  - ▶Net 1등=김기중
  - ▶Net 2등=서상현
  - ▶Net 3등=한재은
  - ▶장타상=위장호
  - ▶근접상=황치룡
- ♀여성부
  - ▶Gross Champion = Mrs. 박(박영규)
  - ▶Net Champion = Mrs.김(김태기)
  - ▶Net 1등=Mrs. 노(노영일)
  - ▶장타상=Mrs.전(전현일)
  - ▶근접상=Mrs. 반(반용균)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

10월24일 노스 이스트인 일리노이 대에서 가을밤 조화 이틀 '4개 앙상블의 밤'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꿈을 심는 가을 음악회(포스터 참조)'가 10월24일(토) 오후 7시 30분부터 노스 이스트인 일리노이 대학 오디토리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4개의 다른 앙상블이 출연해 각각 다른 악기의 조화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앙상블의 밤'이 특징이다.

'Glasses'로 시작된다. 이어 이 두 동문 외에 줄리어드와 이스트만을 졸업한 최현지씨가 가세하는 4중주가 이어진다. 이 4중주의 리더는 모스크바 컨서바토리를 졸업하고 현재 노스 이스트인 일리노이대 첼로 Faculty로 있는 나자르주

첫 앙상블은 피아노 듀오로 일리노이대인수정교수 김동준과 순교대교수 정이동문씨를 함께 연주한다. 두 번째 앙상블은 칼리지에서 작곡을 연수 중인 김미숙 동문과 플룻을 전공한 김미숙 동문의 피아노와 플룻을 위한 연주이다. 세 번째는 게스트의 클라리넷 2중주다. 이는 김영동 동문이 추천한 클라리넷 연주자 송윤주씨가 이끄는 앙상블로 송윤주씨는 이화여대 음대 출신으로 독일로 유학해 음악을 공부한 음악가다. 또 다른 클라리네스트는 서울예고 재학중 시카고에 와서 음악을 전공해 활동중인 이규석씨다. 덴펠스 존의 곡이 반주로 연주될 예정인데 이는 오벌린 음대를 졸업한 송지은씨가 맡게 된다. 마지막 앙상블은 첼로 2중주와 4중주다. 먼저 김은정 이수정 동문의 첼로 2중주로 베토벤의 'Eye

2009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 주최 시카고 한국일보 특별후원

꿈을 심는 가을 음악회

AUTUMN DREAM CONCERT

Presen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CHICAGO  
Sponsored by THE KOREA TIMES CHICAGO

Participating Ensembles (출연 앙상블):  
Cello Quartet  
Piano Duet, Clarinet Duo  
Chicago New Arts Trio

Saturday, October 24, 2009, 5:30 PM  
Northeastern Illinois University Auditorium  
(5500 N Saint Louis Ave, Chicago, IL 60625)  
Tickets: \$ 30  
Contact: 708-214-4447

입니다. 첼로 4중주가 연주할 곡은 모차르트의 곡과 스페인 작곡가 임마누엘 드 파야의 춤곡, 미국 민요 'Home on the Range'에 의한 변주곡 등이 다. 시카고 동창회(회장 노영일)에서는 지난해 이 연주회에서 모금한 기금으로 7명에게 각각 1천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음악회에서도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력을 바라고 있다.



# 선배님! 함께 해주세요!

## VISION2025 모금 캠페인, 세계 최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대님, 우리 후대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선대님들이 다져놓으신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  
비전2025 모금 캠페인은,  
세계 정상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 모교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3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비전2025 캠페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벌써 80% 가까운 모금을 달성했습니다.  
잇진 마무리는 동문 선대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선대님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이  
바로 서울대의 경쟁력입니다.

• 동문 집금 참여 기간 : 2009년 8월~2010년 7월

##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VISION2025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 Global Excellence	세계 초일류 인력 육성 민학의 국제화 글로벌 학문 육성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Social Impact	사회 기여의 확대 사회 정책 가능 강화
미래를 위한 변화와 준비 Foundation for Transformation	민학 혁신 지원 학문 인프라 강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지원은 서울대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사용됩니다.

발전기금 참여 계좌: Woori Bank Seoul National Univ. Br.  
Address: San 4-2, Naksungdae-dong, Gwanak-gu,  
Seoul 151-919, Korea  
Account No.: 1081-000-418404  
Swift Code: HVBKKRSE  
문의: 82-2-880-5026, 871-8146  
gift@snu.or.kr  
http://www.snu.or.kr





동창회비 및 업소록 광고비 납부자 현황

관악 후원회비

앞 페이지에서 계속

<b>IL</b>	이윤모(농대 57입) 200	이항열 25	신정윤 (공대 60 입) 200	김상순 300	박용걸 225
김태기 (의대 62입) 100	임현재(의대 59입) 500	이희규 200	윤갑석 (상대 83 입) 200		박평일 25
강장만 (의대 58입) 400	장기남·김승주 200	권철수 200	최희웅 200	<b>PA</b>	이규섭 (상대 68입) 200
구경희 (의대 59입) 1,000	정승규(공대 60입) 200		허선행 200	김국간 200	이영목 (공대 59입) 500
김영호 (의대 71입) 200	조대현(공대 57입) 200	<b>MI</b>		서중민 200	정원자 200
김윤범 (의대 52입) 200	조중행,박숙 1,000	유효명 25	<b>NY</b>	손재옥 200	
김윤태 (의대 63입) 1,000	진관보(의대 72입) 200	차대양 200	권영대 200	이지춘 (공대 60입) 200	<b>WA</b>
김재환 (사대 72입) 200	최희수, 이순자 200		김영배 200	정경수 (의대 56입) 200	김성열 (치대 61입) 200
김정주 (문 60입) 200	한재은(의대 59입) 500	<b>MN</b>	김용연 200		
노영일·지예자(의) 200		김태환 (문 60입) 200	박준희 (인문대 86입) 200	<b>TX</b>	
박영규 (농 57입) 200	<b>MA</b>	왕규현 200	성기호 200	명인성 200	<b>CA</b>
반용균(의대 53입) 200	김제호 200		이근수 25	조시호 200	박종수 150
서상현(의대 65입) 125	<b>MD</b>	<b>NJ</b>	이준행 (공대48입) 3,000	황의찬 200	
윤효정(사대) 25	김장호 25	기도석 200	최구진 200	<b>VA</b>	
이광선(의대 59입) 200	이태영 200	박경원 200		김기봉(공대 63입) 200	
이승자(사대 60입) 200		박승원 500	<b>OR</b>		

종신 이사회비

이석호 (공대 66입) 100
조용원 (문리대 66입) 1,500
이장우 (문리대 72입) 100

인명록 대금

김정민 (공대 66입) 45	
박승원 45	
<b>NJ</b> 김대언 45	
<b>HI</b> 윤상철 (약대47 입) 45	

등문 업소록 광고비

<b>CA</b>	<b>OR</b>
김광철 (약대 65 입) 120	김상순 120
신대식 (상대 60 입) 120	
<b>IL</b>	
이춘우 (치대 54 입) 120	
<b>NY</b>	
김영배 (미대 입) 120	

인명록은 뉴욕의 제 9대 회장단에서 취급합니다. 구입 신청과 대금 납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NU-USA, 131 West 35th St. (New York Golf Buldg.), New York, NY 10001  
 Tel (212) 563-9641, Fax (212) 563-9647 Email: snuusa@Gmail.com

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2년분 납부하신 등문

<b>AK</b>	박종수(문리 60) 현원영	<b>GA</b>	김용건 (문리 48입)	<b>MD</b>	김명자 (간호 55입)	<b>OR</b>	노용면 (의대 49입)	<b>VA</b>	김기봉 (음대 87입)
윤제중 (농대 55입)	서치원 (공대 69입)	김재환	박명영 (의대 66입)	<b>NJ</b>	이문취 (문리 54입)	최근영 (법대 63입)	박수안 (의대 59입)	이석형 135	
<b>AZ</b>	박종성 (법대 53입)	노영일·지예자	<b>MI</b>	이한중 (의대 58입)	이희경 (의대 55입)	<b>PA</b>	이희경 (의대 55입)		
지영환 (의대 61입)	조태목 (사대 60입)	최계숙	유효명 25	한인섭	한승신	전희곤	한승신		
<b>CA</b>	김익창 (의대 51입)	이소희 (의대 61입)	<b>MN</b>	<b>NY</b>	<b>OH</b>	김용국 (의대 58입)	<b>OH</b>		
김석홍	<b>FL</b>	임현재 (의대 59입)	김권식 (공대 61입)	양금자 (미대 69입)	송용덕 (의대 57입)	<b>TX</b>	송용덕 (의대 57입)		
김정민	오석일 (의대)		<b>NE</b>	황분하 (수의 78입)	<b>ONT,CANADA</b>	조시호 (문리 59입)	<b>TX</b>		
노재민					이승찬 (농대 55입)		조시호 (문리 59입)		

회비/기금 납부 통계

기금/회비 분류	명수	퍼센트
관악후원회비	105	14.8
광고비	7	1
기타	1	0.1
동창회비	550	77.4
인명록대금	6	0.8
종신이사회비	1	0.1
특별후원금	8	1.1
평의원회비	2	0.3
회의참가비	31	4.4
합계	711	100

지역별	관악 후원회비	동창회비	기타	합계	지역별	관악 후원회비	동창회비	기타	합계
	3	17	6	26	<b>MS</b>		1		1
<b>AK</b>		1		1	<b>NC</b>		3		3
<b>AZ</b>	1	2		3	<b>NE</b>		2		2
<b>CA</b>	24	179	5	208	<b>NJ</b>	9	41	2	52
<b>CO</b>		1		1	<b>NV</b>		1		1
<b>CT</b>		1		1	<b>NY</b>	10	64	2	76
<b>FL</b>	1	9		10	<b>OH</b>		10		10
<b>GA</b>	2	5		7	<b>ON</b>		1		1
<b>HI</b>		2	1	3	<b>OR</b>	1	7	1	9
<b>IL</b>	27	60	35	122	<b>PA</b>	6	23		29
<b>IN</b>		4	1	5	<b>RJ</b>		1		1
<b>KOREA</b>			1	1	<b>TN</b>		1		1
<b>KS</b>		1		1	<b>TX</b>	3	19		22
<b>MA</b>	2	8		10	<b>VA</b>	7	20		27
<b>MD</b>	4	24	1	29	<b>WA</b>	1	13	1	15
<b>ME</b>		1		1	<b>WI</b>		2		2
<b>MI</b>	2	17		19	<b>WV</b>		1		1
<b>MN</b>	2	8		10	<b>합계</b>	105	550	56	711

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1년분 \$75 납부하신 동문

<b>CA</b> 강신호 (사대 49 입) 강정훈 (미대 56 입) 강중경 (공대 48 입) 강진호 (사대 58 입) 고영철 (의대 45 입) 구혜선 (미대 81 입) 권길상 (음대 44 입) 권대원(경영대원 59입) 권영달 (문리대 52입) 권영재 (의대 57 입) 권영조 (의대 66 입) 김훈 (의대 65 입) 김경신 (사대 70 입) 김계윤 (의대 57 입) 김광은 (음대 56 입) 김광철 (사대 47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근민 (법대 56 입) 김낙구 (상대 67 입) 김동산 (법대 59 입) 김동석 (음대 64 입) 김명자 (문리대 62입) 김병호 (문리대 80 입) 김순길 (법대 54 입) 김영기 (의대 58 입) 김영덕 (공대 51 입) 김영배 (공대 73 입) 김영석 (수의대 ) 김영춘 (법대 54 입) 김용채 (음대 ) 김원재 (의대 49 입) 김유감 (의대 49 입) 김은희 ( ) 김일영 (의대 ) 김재무 (상대 58 입) 김정복 (사대 55 입) 김정민 (간호대 69입) 김정애 (간호대 69입) 김정화 (미대 63 입) 김종화 (생과대 71입) 김종표 (법대 58 입) 김진호 (의대 80 입) 김창무 (음대 53 입) 김태웅 (의대 61 입) 김태훈 (법대 53 입) 김현호 (문리대 59 입) 김희재 (사대 66 입) 나두섭 (의대 86 입) 노명호 (의대 74 입) 노상규 (공대 60 입) 문병하 (법대 51 입) 문인일 (공대 51 입) 민병환 (약대 68 입) 민영기 (공대 65 입) 박국종 (법대 57 입) 박현 (상대 ) 박동훈 (의대 58 입) 박성민 (의대 58 입) 박영옥 (공대 53 입) 박원준 (약대 80 입) 박종수 (공대 80 입) 박종식 (의대 48 입) 박창선 (공대 55 입) 박취서 (약대 60 입) 박태호 (상대 76 입) 방명진 (공대 73 입) 백성용 (사대 52 입) 서승열 (공대 59 입) 성락호 (치대 65 입) 손남수 (미대 ) 송은섭 (치대 70 입) 송준섭 (농대 65 입) 신대식 (52 입)	신동국 (수의대 76 입) 신영규 (의대 57 입) 신영수 (치대 64 입) 신용규 (치대 67 입) 신우천 (치대 67 입) 신정연 (미대 61 입) 신희정 (미대 ) 안병일 (의대 63 입) 안현중 (음대 56 입) 양광주 (대학원58입) 양승문 (공대 65 입) 양은석 (음대 70 입) 양창효 (상대 54 입) 양태준 (상대 56 입) 염동해 (농대 74 입) 오양숙 (간호대 60입) 우옥자 (간호대 60입) 유석홍 (상대 61 입) 유석영 (문리대 56입) 유현순 (상대 60 입) 윤석철 (상대 83 입) 윤장희 (의대 58 입) 윤홍기 (의대 42 입) 이강원 (공대 66 입) 이경수 (수의대73입) 이근철 (상대 58 입) 이근호 (공대 46 입) 이기재 (사대 52 입) 이길자 (음대 57 입) 이남경 (의대 80 입) 이명희 (법대 57 입) 이병무 (공대 66 입) 이승훈 (상대 57 입) 이양구 (치대 85 입) 이영송 (간호대 77입) 이영신 (음대 46 입) 이우근 (음대 65 입) 이은희 (공대 71 입) 이재룡 (생과대 71입) 이정옥 (간호대69입) 이종묘 (의대 81 입) 이준식 (공대 81 입) 이준호 (공대 69 입) 이중열 (공대 69 입) 이혜연 (의대 68 입) 이혜란 (의대 57 입) 이희숙 (음대 76 입) 임용오 (치대 69 입) 임정란 (인문대85입) 임희영 (미대 67 입) 장준 (문리대66입) 장경구 (약대 66 입) 장기창 (사대 80 입) 장동석 (공대 54 입) 장동석 (문리대 66입) 장동석 (문리대 60입) 장진성 (문리대 61입) 전낙관 (문리대 55입) 전병원 (의대 64 입) 전호선 (농대 57입) 전화자 (미대 69 입) 정규남 (의대 69 입) 정동구 (공대 52 입) 정두호 (공대 57 입) 정두호 (공대 64 입) 정복근 (사대 69 입) 정수만 (의대 86 입) 정원훈 (상대 38 입) 정인덕(보건대학원64) 정재형 (의대 55 입) 정진수 (공대 56 입) 정현진 (법대 63 입) 조재길 (사대 81 입) 조종용 (문리대 50입) 진희철 (공대 85 입) 차기원 (공대 85 입) 채희원 (간호대 68입) 최경자 (음대 61 입) 최덕순 (간호대 59입) 최승룡 (상대 53 입) 최영순 (간호대 69입) 최왕욱 (공대 69입) 최인용 (문리대 65입) 최태근 (법대 48입) 최홍수 (자과대 87입) 하기환 (공대 66 입) 하상원 (대학원 90입) 한중철 (치대 ) 홍병익 (공대 68 입) 황동하 (의대 65 입) 황만의 (사대 59 입)	<b>CO</b> 정화용 (사대 61 입) <b>CT</b> 김내도 (공대 62 입) <b>FL</b> 신생재 (수의대 59입) 안창현 (의대 57 입) 양관기 (의대 57 입) 이중오 (의대 58 입) 전용상 (공대 46 입) 한기민 (공대 52 입) 한성수 (공대 52 입) 한용현 (공대 52 입) <b>GA</b> 김영서 (상대 54 입) 문종현 (의대 54 입) 오경호 (수의대60입) <b>HI</b> 림양수 (의대 54 입) 윤상철 (수의대60입) <b>IL</b> 강영국 (수의대 67입) 강창만 (의대 58 입) 계훈택 (의대 55 입) 고병철 (법대 55 입) 구경희 (의대 59입) 김갑중 (의대 57 입) 김선철 (의대 58 입) 김영호 (의대 71 입) 김용우 (공대 58 입) 김유주 (공대 73입) 김윤범 (의대 54 입) 김정주 (문리대 60입) 김현주 (문리대 61입) 문탁영 (문리대 55입) 박숙 (의대 64 입) 박영규 (농대 57입) 박인숙 (미대 69 입) 반용균 (의대 53 입) 배영섭 (의대 54입) 송재현 (치대 68 입) 오명자 (간호대 60입) 윤효정 (의대 59 입) 이광선 (의대 59 입) 이덕수 (문리대 58입) 이명희 (상대 52 입) 이승자 (사대 60 입) 이운모 (농대 57 입) 이정일 (농대 57 입) 이진주 (문리대 55입) 이춘우 (치대 54 입) 임이섭 (미대 54입) 장기남 (문리 62입) 장윤일 (공대 60입)	장은숙 (문리대 53입) 정광훈 (공대 60 입) 정승규 (공대 60 입) 정지희 (문리대 59입) 조철 (공대 49 입) 조대현 (공대 57입) 조중행 (의대 63입) 진관보 (의대 72 입) 진보린 (약대 56 입) 진보린 (의대 56 입) 최길용 (문리대 57입) 최순분 (간호대 47입) 최애옥 (사대 58 입) 최호승 (문리대 67입) 최희수 (공대 62 입) 한외일 (문리대 55입) 함성택 (문리대 55입) <b>IN</b> 김정숙 (약대 51 입) 송승연 (의대 ) 이종일 (의대 ) 임영신 (의대 54 입) <b>KS</b> 임하진 (의대 79 입) <b>MA</b> 김병국 (공대 71 입) 김은한 (의대 60 입) 김제호 (상대 56 입) 박기순 (간호대 70입) 박종건 (의대 56 입) 윤은상 (상대 66 입) 이재용 (의대 93 입) 이희규 (공대 69 입) <b>MD</b> 강창욱 (의대 55 입) 권철수 (의대 68 입) 김창호 (법대 56 입) 남옥현 (경영대 84입) 노광욱 (의대 63 입) 노상철 (의대 63 입) 박찬호 (약대 67 입) 소숙영 (간호대 64입) 신구용 (공대 59 입) 신상근 (의대 52 입) 신상근 (의대 52 입) 오인환 (의대 67 입) 오혜현 (약대 55 입) 이유세 (사대 72 입) 이재송 (의대 55 입) 이준영 (치대 74 입) 이태영 (법대 60 입) 이향열 (법대 57 입) 임종식 (미대 57 입) 임필순 (의대 54 입) 조세진 (의대 65 입) <b>ME</b> 채도경 (의대 59 입) <b>MI</b> 권순관 (공대 60 입) 김홍호 (의대 60 입) 김우신 (의대 60 입) 김원정 (의대 69 입) 김정일 (의대 57 입) 유효명 (의대 ) 육태식 (의대 61 입) 이상일 (의대 54 입) 장철 (의대 65 입) 장병호 (의대 66 입) 차대양 (공대 55 입) 채무원 (의대 59 입) 최광창 (의대 55 입)	하계현 (공대 64 입) <b>MN</b> 김태환 (의대 58 입) 남세현 (공대 67 입) 변우진 (인문대 81입) 성욱진 (치대 87 입) 송창원 (문리대 53입) 황규현 (의대 56 입) 주한수 (수의대 62입) <b>MS</b> 김진호 (의대 49 입) 홍훈 (문리대 75입) <b>NE</b> 이상문 (의대 49 입) 홍훈 (문리대 75입) <b>NE</b> 이상문 (의대 49 입) 홍훈 (문리대 75입) <b>NJ</b> 곽상준 (약대 55 입) 기도석 (공대 67 입) 김대연 (의대 59 입) 김동건 (사대 71 입) 김명철 (공대 60 입) 김세환 (공대 65 입) 김양호 (의대 51 입) 김영애 (사대 56 입) 김영철 (약대 ) 김은섭 (의대 53 입) 김준일 (공대 60 입) 박경원 (미대 66 입) 박대규 (사대 55 입) 박성호 (공대 57 입) 박은규 (약대 72 입) 박익수 (사대 52 입) 배명애 (간호대 47입) 송기인 (의대 60 입) 유호근 (문리대 71입) 윤갑식 (공대 53 입) 윤순철 (사대 44 입) 윤준식 (법대 58 입) 이유찬 (의대 58 입) 이재원 (사대 52 입) 이종석 (의대 54 입) 정순기 (문리대 69입) 주선후 (의대 43 입) 최원로 (의대 58 입) 최희용 (문리대61입) 추재욱 (의대 57 입) 탁명양 (약대 52 입) 허선행 (의대 58 입) <b>NV</b> 최영식 (법대 59 입) <b>NY</b> 강영선 (공대 50 입) 곽승용 (의대 65 입) 권영대 (공대 69 입) 권문경 (약대 61 입) 김석식 (의대 58 입) 김석자 (음대 61 입) 김영배 (공대 78 입) 김용연 (문리대63입) 김우연 (상대 60 입) 김혜암 (의대 53 입) 김발식 (의대 60 입) 박순영 (법대 56 입) 박정식 (사대 59 입) 박현성 (약대 60 입)	서경애 (음대 67 입) 서상철 (의대 49 입) 성기로 (약대 57 입) 송영순 & 유영호 (의대 ) 신남철 (의대 ) 양거영 (의대 ) 양세관(경영대원66입) 오인환 (문리대63입) 유광현 (의대 58 입) 유계섭 (공대 65 입) 유정자 (간호대63입) 윤정옥 (약대 50 입) 이근수 (상대 64 입) 이대연 (약대 65 입) 이대영 (문리대64입) 이성수 (공대 56 입) 이영애 (농대 59 입) 이정은 (의대 58 입) 이주정 (상대 68 입) 이준행 (약대 ) 이혜청 (의대 ) 이현호 (공대 58 입) 이희자 (간호대70입) 임공세 (의대 61 입) 임대목 (의대 58 입) 장영식 (법대 59 입) 전병삼 (약대 ) 정인식 (상대 58 입) 정진선 (간호대82입) 정택수 (문리대46입) 조숙자 (간호대87입) 조화환 (치대 65 입) 천병수 (공대 70 입) 최구진 (약대 54 입) 최일단 (미대 55 입) 최태식 (의대 69 입) 최형무 (법대 69 입) 한승원 (미대 60 입) 한용진 (미대 55 입) 한용호 (법대 48 입) 홍선정 (의대 58 입) <b>OH</b> 김한교 (의대 55 입) 명인재 (의대 63 입) 손기용 (의대 56 입) 송용재 (의대 56 입) 이범서 (의대 56 입) 이용용 (의대 56 입) 이용재 (공대 60 입) 정길화 (의대 59 입) 채혜숙 (의대 59 입) <b>OR</b> 김상만 (법대 52 입) 김상준 (상대 67 입) 김영자 (간호대69입) 김성모 (사대 67 입) 최근영 (의대 43 입) 최준희 (의대 58 입) 최희용 (문리대61입) 추재욱 (의대 57 입) 탁명양 (약대 52 입) 허선행 (의대 58 입) <b>PA</b> 강영배 (수의대59입) 김국간 (치대 64 입) 김영우 (공대 55 입) 박영한 (약대 68 입) 서중민 (공대 64 입) 손계옥 (생과대77입) 송영두 (의대 56 입) 신선자 (치대 58 입) 오진석 (음대 57 입) 윤정호 (음대 56 입) 이규호 (공대 60 입) 이봉재 (공대 95 입) 이지춘 (미대 ) 장성환 (의대 55 입)	정홍택 (상대 61 입) 조영일 (의대 68 입) <b>RI</b> 오세자 (인문대71입) <b>TX</b> 김기준 (공대 60 입) 김영옥 (의대 60 입) 김영창 (의대 60 입) 김의신 (의대 60 입) 김현정 (음대 90 입) 명인성 (공대 50 입) 박민자 (미대 60 입) 박석규 (의대 60 입) 박영규 (농대 73 입) 유길선 (농대 73 입) 유세만 & 박유미 (의대 ) 이규진 (약대 60 입) 이길영 (문리대59입) 정철물 (문리대57입) 조진대 (상대 60 입) 조기주 (상대 60 입) 최성호 (의대 53 입) 최용찬 (의대 53 입) 탁순택 (사대 57 입) 황의찬 (사대 76 입) <b>VA</b> 고무환 (법대 57 입) 곽근영 (사대 51 입) 김세환 (공대 62 입) 남광순 (음대 64 입) 박경훈 (상대 55 입) 박용길 (약대 56 입) 박일영 (문리대59입) 박정일 (농대 69 입) 박정순 (의대 54 입) 서희열 (의대 55 입) 신용계 (문리대74입) 유종열 (의대 60 입) 윤개일 (의대 45 입) 이형모 (의대 45 입) 정재훈 (농대 62 입) 정원자 (문리대50입) 최동원 (상대 56 입) 최원열 (공대 60 입) <b>WA</b> 구본영 (공대 65 입) 김영일 (문리대49) 김윤국 (상대 68 입) 박홍 (공대 74 입) 박종수 (법대 58 입) 변종혜 (법대 58 입) 유성열 (공대 72 입) 이정희 (의대 58 입) 이대원 (사대 58 입) 이순모 (공대 63 입) 이종성 (공대 63 입) 황재규 (의대 58 입) <b>WI</b> 장홍 (문리대61입) 장세관 (의대 57 입) 전장호 (공대 55) <b>WV</b> 정약훈 (의 )
--	--	--	---	---	---	---

동문 업소록

휴스턴

무역/오일 분야

C & G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Tel: (713)466-1644
10350 Clay Road #150 Houston TX 77041

변호사

Onetech Law Firm
장재석(상대 67) Tel: (915)227-8317
5525 N. Station El Paso TX 77034

보험/중개업

Farmers Insurance
곽용진(문리 59) Tel: (915)227-8317
1240 Blalock #120 Houston TX 77055

사무직/엔지니어

SBM Atlanta
김기준(상대 61) Tel: (281)848-6373
1255 Enclave Parkway Houston TX 77077

서비스/상식사

한국장외사
조시호(문리 59) Tel: (281)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수의학/동물병원

싱크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Tel: (281)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Tel: (281) 531-9095
1366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컨설팅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성(상대 69) Tel: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상대 60) Tel: (281)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 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상대 50) Tel: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엔지니어링/원유 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상대 50) Tel: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유통/광고상비

Cysco Tech International
채영진(상대 50) Tel: (713)892-0600
8931 Four Leaf Drive Suga Land TX 77479

의료/산부인과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Tel: (281)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학교/대학

라매대학
김태훈(상대 57) Tel: (409)850-7861
4400 MLK Parkway Beaumont TX 77705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Tel: (503)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종교/목사

엘림한인교회
최근영(상대 63) Tel: (503)231-1625
61 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미네소타

건축/토목설계

EVS, Inc
김연석(공대 61) Tel: (952)646-0238
10250 Valle View Rd., Suite 123 EdenPrairie MN 55344

변호사

변우진 법률사무소
변우진(인문 81) Tel: (952)926-0040
4005 W. 65th St. #202 Edina MN 55435

컴퓨터

Seagate Technology
심원진(공대 84) Tel: (952)402-2644
1280 Disc. Dr. Shakopee MN 55379

뉴잉글랜드

교회/목사

보스톤시온교회
정경진(공대 62) Tel: (781)275-8327
400 Great Road Bedford MA 01730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희(상대 56) Tel: (617)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비영리법인

한글문화원
김영숙(사대 75) Tel: (617)850-2108
229 Hurley St. #1 Cambridge MA 02141

소프트웨어

SoftInx, Inc
이희규(상대 69) Tel: (987)439-0100
85 Rangeway Rd., Bldg. One North Billerica MA 01862

수의학/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유성태(수의 62) Tel: (978)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희(수의 61) Tel: (978)851-3638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엔지니어링/재료시험

Bureau Veritas CPS, Inc.
박병준(상대 52) Tel: (508)844-2712
350 Myles Standish Blvd. Taunton MA 02780

의료/정신과

Psychological Services
김영진(사대 59) Tel: (413)736-5393
155 Maple St. Springfield MA 01105

의료/의원

Renal Medical Care, P.C.
장태진(의대 53) Tel: (617)298-1169
Seton Med. Building #208 Boston MA 02124

의료/산부인과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Tel: (978)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제조업/계약

Ipsen Pharmaceutical Co.
김신혁(약대 59) Tel: (508)478-0144
27 Maple St. Milford MA 01757

오하이오

상담/생활설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용(의대 56) Tel: (419)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학/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장홍환(수의 75) Tel: (330)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산부인과

Yong D. Song M.D. Inc.
송용덕(의대 57) Tel: (740)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의료/소아과

서좌일 소아과
서좌일(의대 59) Tel: (440)282-7034
4560 Orerin Ave. #1 Lorain OH 44053

의료/내과

장극기 심장내과
장극기(의대 64) Tel:
6789 ridge Rd. #203 Parma OH 44129

의료/의원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Tel: (440)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Brook Park Medical Clinic
홍준표(의대 58) Tel: (216)676-6411
15400 Snow Rd. Brook Park OH 44142

Lancater Radiation
조길영(의대 68) Tel: (614)568-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하트랜드

부동산/중개업

M.C. Properties
최만식(농대 64) Tel: (816)668-1196
8500 E. 350 Hwy Kansas City MO 64133

상업/재정

Fund Development
전선옥(상대 50) Tel: (913)648-2353
5500 W 98TH Place Overland Park KS 66207

의료/병원

Deaconess Hospital
민정환(의대 56) Tel: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의료/의원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Tel: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워싱턴주

리테일러/식당장비

A-1 Reestraunt Supply, Inc.
박홍(상대 68) Tel: (425)673-8949
20307 Hwy99 Suite C Lynnwood WA 98036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Tel: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사무직/컴퓨터소프트웨어

Guppy Media Inc.
최두환(상대 83) Tel: (425)450-9494
12443 Be-Red Rd., Suite 383 Bellevue WA 98005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상열(공대 72) Tel: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수의학/동물병원

Federal Way Ani. Hosp.
이승택(수의 75) Tel: (253)529-0306
1700 S. 305th Place, SITE A Federal Way WA 98003

엔지니어링/항공

The Boeing Company
김제환(공대 72) Tel: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의원

Painless Clinic
신장범(법대 73) Tel: (425)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김성열(치대 61) Tel: (360)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Tel: (801)263-8866
29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조지아

리테일러/편광식품

Good Nutrition
김만복(유리 72) Tel: (770)8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리테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선(공대 76) Tel: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변호사

안법률사무소
장아래(문리 64) Tel: (770)455-3244
5465 Buford Hwy, Sute #202 Atlanta GA 30340

수의학/동물병원

Abbott Gwinnett Animal Hospital
오경희(수의 60) Tel: (770)921-2121
5534 Hwn 29 Lilburn GA 30034

Town N Country Animal clinic
김연국(수의 74) Tel: (813)885-2791
5237 Ehrlich Rd Tampa FL 33624

Long Lake Animal Hospital
홍순희(수의 74) Tel: (813)264-5600
15415 N. Florida Ave Tampa FL 33613

스토아/골프

피치트리 웨일리 골프센터
황성주(사대 70) Tel: (770)497-9265
2833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7

은행/이사장

Metro City Bank
백낙영(상대 61) Tel: (770)455-4971
5441 Buford Highway Suite #109 Atlanta GA 30340

은행/이사장

Metro City Bank
백낙영(상대 61) Tel: (770)455-4971
5441 Buford Highway Suite #109 Atlanta GA 30340

의료/의원

Heart Care Centre
김계석(의대 66) Tel: (407)291-2440
5840 W. Colonial Dr. #1 Orlando FL 32808

제조업/의류

CK International Inc.
전일우(상대 50) Tel: (305)759-2800
398 N. E. 79th St. Miami FL 33138

제조업/화학제품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Tel: (404)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동문 업소록

학원/온라인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여성(공대 71) Tel: (678)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필라델피아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진우(공대 61) Tel: (609)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건축/설계/시공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환과대 77) Tel: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 환(공대 68) Tel: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은행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Tel: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Tel: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리테일러/잡화

Jay & Co.
제갈우(문대 59) Tel: (215)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보험/중개업

New York Life.
윤경숙(문대 59) Tel: (215)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19044

비영리법인/한인단체

서재필기념센터
안지영(문대 67) Tel: (215)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서비스/연회장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상대 59) Tel: (610)277-4008
300 E. Main Street Norristown PA 19401

수의사/동물병원

Germantown Ani. Hosp.
전우식(수의 61) Tel: (215)843-8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종민(수의 61) Tel: (215)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Tel: (215)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Tel: (610)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 PA 19050

Market Upper Darby A Hospital
오연각(수의 53) Tel: (610)352-9100
6421 Market St. Upper Upper Darby PA 19082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복(수의 68) Tel: (215)745-3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효(수의 66) Tel: (610)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CHEL-WAYNE ANIMAL HOSPITAL
민홍식(수의 60) Tel: (215)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예술/갤러리

요식업/음식당

이즈미 일식당
최종민(공대 61) Tel: (215)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약대 67) Tel: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의원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Tel: (215)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dvanced Plastic Surgery Center
김교안(의대 ) Tel: (302)623-4004
774 Chirstiana Rd. Newark DE 19713

의료/정신과

Hack R. Chung, MD, MPH
정학영(약대 56) Tel: (215)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의료/정형외과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Tel: (302)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Tel: (215)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19120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Tel: (215)745-6123
6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Tel: (215)887-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제조업/전기모터

Industrial Electric Motors Co.
한세원(공대 60) Tel: (215)747-7290
6403 Vine St. Philadelphia PA 19139

종교/교회

동산장로교회
한세원(공대 60) Tel: (215)747-7290
5044 Winfield Ct. Bensalem PA 19020

워싱턴DC

공인회계사

Stephen Kim & Co, CPAs
김태연(상대 56) Tel: (301)585-6260
8907 Georgia Ave. Siver Spring MD 20910

Lee Kyu Sup CPA
이규삼(상대 68) Tel: (703)642-2900
4330 Evergreen Lane Sit H Annadale VA 22003

관리자/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Tel: (410)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금융/융자

Optima Funding Group Inc.
남옥연(경영대 84) Tel: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리테일러/골프백화점

Joseph's Golf
정요셉(사대 70) Tel: (301)725-0888
8445 Old Columbia Rd. Laurel MD 20723

리테일러/꽃집

하지은꽃집
하지은(음대 92) Tel: (301)270-1848
6921 Laural Ave. Takoma Park MD 20912

변호사

정태경 변호사
정태경(사대 62) Tel: (301)424-1940
501 Hungerford dr. apt # 321 Rockville MD 20850

조형진 이민변호사
조형진(상대 84) Tel: (703)354-4202
7002 Little River Tnpk Annandale VA 22003

합동법률사무소
박상우(법대 75) Tel: (703)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담섭(약대 57) Tel: (703)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보험/중개업

MetLife
김 국(음대 75) Tel: (703)304-2129
7600 Leesburg Pike #201W Falls Church VA 22043

부동산/중개업

Sunny Ahn 부동산
강승원(생환과대 64) Tel: (703)623-5171
13135 Lee Jackson Fairfac VA 22033

Sweet Home Realty
강연석(사대 58) Tel: (703)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마정일(음대 69) Tel: (703)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법인/연구소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돌(문대 60) Tel: (703)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서비스/여행업

해보라여행사
김 국(음대 75) Tel: (703)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Hans World Travel
한인성(문대 55) Tel: (301)770-1717
152 Rollins Ave., Suite 208 Rockville MD 20852

수의사/동물병원

Ross Veterinary Hospital
유정식(수의 60) Tel: (202)363-1316
5138 Mac Arthur Blvd. N.W. Washington DC 20016

Elpaw Veterinary Clinic
한희생(수의 60) Tel: (703)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Hillendale Animal Hospital
박찬도(수의 68) Tel: (703)680-2717
13183 Center Pointe Way Woodbridge VA 22193

엔지니어링/광산업

Kyanute Corporation
임단주(공대 55) Tel: (434)983-2085
30 Willis Mountain Plant Ln. Dillwyn VA 23936

엔지니어링/태양광발전

Drivetsch, Inc.
임달용(공대 69) Tel: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요식업

우래옥
백희남(문대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

Daniel I. Kim, M.D.
김익재(의대 76) Tel: (301)230-9893
110 Congressiona Lane Rockville MD 20878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Tel: (410)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박수용내과
박수용(의대 63) Tel: (703)273-6802
10680 Main St. #130 Fairfax VA 22030

의료/소아과

Belair Pedatric Center
안필순(의대 56) Tel: (410)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의료/신경정신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Tel: (410)225-8779
827 Linden Ave. #442 Baltimore MD 21201

의료/의원

Washington Cancer Institute
유 달(의대 61) Tel: (202)877-4599
1160 Varnum St., N.E. #217 Washington DC 20017

Georgetwon Vascular Associates, R S O
이병광(의대 57) Tel: (703)880-9500
1830 Twon Center Dr. #401Reston VA 20190

의료/세월과

조병선 물리재활과
조병선(의대 65) Tel: (703)941-2666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의료/치과

김훈진 치과
김훈진(치대 54) Tel: (301)949-1345
12100 Heritage Park Dr. Silver Spring, MD 20906

이영재 치과
이영재(치대 66) Tel: (301)649-4197
10313 Georgia Ave #205, Silver Spring, MD 2090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Tel: (301)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20740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Tel: (301)926-9692
8931 Shady Grove Rd., Gaithersburg, MD 20877

이한봉 치과
이한봉(치대 59) Tel: (301)649-2201
1119 Arcola Ave. Silver Spring MD 20902

의료/병원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Tel: (301)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Tel: (703)256-8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종교/교회

Newlife Presbyterian
김창호(법대 56) Tel: (410)744-5711
1501 N. Rollying Rd. Baltimore MD 21228

학원

스마트학원
고두환(법대 57) Tel: (703)591-7431
9510-A, Lee Highway Fairfax VA 22031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Ltd.
정승규(공대 60) Tel: (773)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동문 업소록

건축/건설링

Key Global Asso. 하계현(공대 64) Tel: (248)613-0993 1435 Tacoma Dr. Rochester Hills MI 48306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Tel: (618)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N 62221

금융/증권투자, 보험

Green Realty, Inc. 김성원(수외 71) Tel: (847)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리서치/기술개발

Heat Transfer R&D, LTD 이용락(공대 48) Tel: (847)577-5967 1010 W. Lonquist Mt. Prospect IL 60056

리테일러/백화점

Modern Gifts & Dundee Shiseldo 지명식(사대 65) Tel: (847)559-1005 3121 Dundee Rd. Northbrook IL 60062

변호사

이흥미 변호사 이흥미(약대 63) Tel: (773)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광원(법대 55) Tel: (773)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관리

남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준(공대 52) Tel: (734)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임두생(문리 61) Tel: (847)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IT Realty, Inc. 송성준(법대 76) Tel: (847)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Tel: (630)207-2515 24 Conn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담/재정, 투자

셀리 전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Tel: (847)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중(수의 83) Tel: (219)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ep. 좌영문(수의 72) Tel: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Justice Animal Clinic 강영국(수의 67) Tel: (708)599-4800 8507 S. Roberts Rd. Justice IL 60458

숙박업/호텔

Radleson Hotel(Lincolnwood) 배건재(공대 54) Tel: (847)877-1234 4500 W. Touhy Ave., Loncolnwood IL 60646

의료/세과

심기창 내과 심기창(문리 68) Tel: (773)478-9250 3447 W. Lawrence Ave., Chicago IL 60625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Tel: (248)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희운 심장내과 C. A. V. A 윤희운(의대 63) Tel: (248)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의료/산부인과

이민자 산부인과 이민자(의대 63) Tel: (847)991-1400 800 e. Northwest HWY Palatin IL 60067

의료/소아과

Rosa H. Chol, MD, SC 최혜숙(의대 53) Tel: (708)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Tel: (810)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의료/외과

Elgin Cardiac Surgery, S.C. 임현재(의대 59) Tel: (847)695-1620 915 Center St. Elgin IL 60120

홍광렬관 외과 배영선(의대 54) Tel: (630)543-4040 501 S. Grace St. Addison IL 60101

St. Joseph Mercy Hoep. 이영보(의대 53) Tel: (248)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의료/의원

Gundersen Clinic 유 준(의대 61) Tel: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Chul Chang, MD 장 칠(의대 65) Tel: (269)427-5304 P. O. Box 250 Bangor MI 49013

Elgin Cardic Surgery S.C. 조중행(의대 63) Tel: (847)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PC 서상훈(의대 65) Tel: (773)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의료/치과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Tel: (847)390-7474 9101 N. Greenwood Ave. #301, Niles, IL 60714

조희경 치과 조희경(치대 80) Tel: (847)562-1252 332 Skokie Valley Rd. #222 Highland Park IL 60035

윤석환 치과 윤석환(치대 58) Tel: (847)965-6878 5830 Dempster St. Morton Grove IL 60053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6) Tel: (618)239-6151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N 62221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Tel: (847)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Tel: (847)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제조업/특수섬유

HDM Inc. 김영희(공대 65) Tel: (651)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학교/한국문화학교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Tel: (248)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정택(문리 55) Tel: (847)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065

뉴욕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Tel: (201)945-7879 321 Broad Ave., #B-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UJ 건축사 사무소 김주현(공대 93) Tel: (347)213-3516 31 West 74th St., #2A New York NY 10023

Park Engineering, PC 박영건(공대 57) Tel: (201)447-7054 370 Annette Ct. Wyckoff NJ 07481

Joohee Bong Architects & Planners 봉주희(공대 90) Tel: (212)697-3131 140 East 46th St. Suite 3G New York NY 10017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Tel: (732)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세무사

Young Tal Chol E.A. 최영태(문리 67) Tel: (212)695-0206 106 Brinkerhoff Terrace Palisade Park NJ 07650

공인회계사

Kenneth K. Lee, CPA 이영국(농대 80) Tel: (201)956-8348 106 Brinkerhoff Terrace Palisade Park NJ 07650

MinSun Ho, CPA 호민선(상대 59) Tel: (212)738-8590 1350 Broadway #606 New York NY 10018

Kim Lee & Co. 김용배(인문대 77) Tel: (212)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Changeoo Kim, CPA P.C. 김창수(약대 64) Tel: (212)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장일화(상대 55) Tel: (212)738-8590 1350 Broadway #606 New York NY 10018

Wha Sam Kong, CPA 공화산(농대 64) Tel: (201)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Tel: (201)569-1177 440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Tel: (212)688-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80) Tel: (212)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Sung N. Park, CPA 박성남(사대 76) Tel: (212)760-2338 481 8th Ave. Suite 1549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Tel: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희(법대 80) Tel: (212)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Jin Won Kim, CPA 김진원(사대 72) Tel: (212)244-2080

39 W. 32nd St. #1704 New York NY 10001 세원 회계법인 김성준(상대 65) Tel: (212)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사무소 문주현(경대원 88) Tel: (212)947-4444 16 West. 32nd St., Apt #704 New York NY 10001

광고/기획 디자인

Dual Advertising(www.dualadv.com) 김복영(미대 86) Tel: (212)753-2001(Ext.21) 400 E. 59St. #12H New York NY 10022

Box Graphics Inc. 최석봉(미대 71) Tel: (212)691-7231 119 W. 23St. Suite #303 New York NY 10011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Tel: (212)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모기지

Best Mortgage 박 환(사대 73) Tel: (201)313-3333 25 Broad Ave. Palisade NJ 07650

금융/세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진(문리 71) Tel: (201)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WBS Enterprises Inc. 박 상(상대 55) Tel: (718)426-9379 47-30 59th St. #6C Woodside NY 11377

금융/투자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 김명수(상대 55) Tel: (212)869-2312 1212 Americas Ave. #2304 New York NY 10036

리테일러/잡화

Kim's Store 김용민(사대 66) Tel: (516)850-0552 1526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6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Tel: (718)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가구

Sun Furniture 정윤영(문대 59) Tel: (718)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리테일러/리뷰

D & M Liquor Business 김덕수(문리 70) Tel: (908)273-4493 221 Broad St. Summit NJ 07901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Tel: (212)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Madison Ave. Liquor, Inc. 라철용(문리 80) Tel: (212)338-0004 244 Madison Ave. New York NY 10016

Hudson Wine Market, Inc. 이홍민(의대 57) Tel: (201)346-0101 1638 Schlosser St. Fort Lee NJ 07024

리테일러/의류

Winswear 이관태(문대 62) Tel: (914)664-4643 32 South 4th Ave. MT. Vernon NY 10550

Caps Unlimited 친명수(상대 70) Tel: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리테일러/신발

Athleisure Foot, Inc 박영태(상대 83) Tel: (973)622-1624 744 Broad St. Newark NJ 07102

리테일러/뷰티/스플라이



동문 업소록

Beauty Supply 이석주(농대 88) Tel: (718)366-6141 54-24 Myrtle Ave. Ridgewood NY 11385

리터일리/보석

Broadway Jewelry 캐신셀(공대 81) Tel: (973)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리터일리/악기

Amadeus Piano 이근부(문대 60) Tel: (201)707-0561 568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리터일/폴세일

New York Golf Center 이철구(농대 60) Tel: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무역/역류

Evershine Mt. Corp. 김우영(상대 60) Tel: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원자재

대림 엔터프라이스 이성근(법대 60) Tel: (201)461-3621 2605 John St. Fort Lee NJ 07024

코람무역회사 캐상권(약대 55) Tel: (973)790-3302 P.O. Box 352 Totowa NJ 07512

무역/종합상사

SK Group, Inc. 우상영(상대 55) Tel: (973)815-1234 55 Central Ave. Panaic NJ 07055

무역/가발

Nina America, Inc. 강석권(법대 61) Tel: (201)941-9100 132 Bergen Blvd. Fairview NJ 07022

무역/전기용품

EAC Trading, Inc. 윤경옥(약대 50) Tel: (516)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Feldman Weinstein, LLP 김용혁(법대 70) Tel: (212)869-7000 420 Lexington Ave., Suite 2620 New York NY 1017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8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김학용 변호사 · 회계사 김학용(공대 76) Tel: (718)445-0123 159-15 Northern Blvd., Suite#111 Flushing NY 11358

Joon Hae Park, Attorney 박준하(인문대 86) Tel: (212)869-3200 104 West 40th St.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조대영(공대 81) Tel: (212)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Sang Ch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Tel: (201)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최형우 법률사무소 최형우(법대 69) Tel: (718)48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Tel: (201)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연봉원 변호사 연봉원(문대 61) Tel: (212)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Sun. W. Young Attorney at Law 양순우(법대 63) Tel: (212)947-0600 38W. 32nd St., Suite#900A New York NY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Tel: (516)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Century 21 Infinity Realty 이재원(법대 60) Tel: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법대 60) Tel: (201)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프리트버그 부동산 유영수(문대 64) Tel: (201)568-1818 610 E. Palisade Ave. Englewood Cliffs NJ 07652

Realty 7, LLC 한혜경(음대 69) Tel: (201)982-6239 2182 Lenoine Ave. Fort Lee NJ 07024

허영자 부동산 허영자(약대 63) Tel: (201)768-5624 Church Rd. Old Tappan NJ 07675

Re/max Diamond 류재우(미대 71) Tel: (732)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More Realty 최 호(문대 61) Tel: (201)346-4300 242 Main St. Fort Lee NJ 07042

뉴스타 부동산 송용길(신대원 69) Tel: (718)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부동산/관리

Ji Jay Corp. 최한용(농대 58) Tel: (718)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문화센터

동부문화센터 이재현(사대 60) Tel: (718)358-8380 35-22 Linden Pl. Flushing NY 11354

유라니아 박우미(음대 77) Tel: (516)528-6846 5 Norden Dr. Brookville NY 11545

사무직

송학린 송학린(법대 59) Tel: (212)675-1813 Astoria New York NY 11105

상담/비즈니스

FCC USA, Inc. 황분하(수의 76) Tel: (631)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상담

송기뢰 기술상담 송기뢰(행정대원 62) Tel: (718)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IBECONS Int'l 강제철(공대 58) Tel: (718)650-0488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장외사

중앙장외사 하혜민(자연과학대 99) Tel: (201)541-6555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서비스/여행사

아리랑여행사 정영희(사대 62) Tel: (212)563-3351 Empire State Bldg. 350 5th Ave. Suit 2206, New York NY 10118

동아여행사 정영희(사대 62) Tel: (212)563-3351 Empire State Bldg. 350 5th Ave. Suit 2206, New York NY 10118

말희여행 박단희(인문대 89) Tel: (201)673-0454 412 Broad St. Bloomfield NJ 07003

서비스/드라이크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채(간호 60) Tel: (914)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Tel: (856)598-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Best Cleaner 김홍일(공대 60) Tel: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서비스/샌역,공중

뉴욕영문서비스센터 이종덕(사대 56) Tel: (718)899-6657 42-38 77th St. Elmhurst NY 11373

서비스/프린팅

B & P Group, Inc. 이석구(문대 69) Tel: (201)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서비스/잠금장지

Alco Lock & Safe, Inc. 정인석(상대 58) Tel: (212)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서비스/인력개발

Cesna Group 안영채(공대 74) Tel: (212)244-0055 40 W. 37th St., suite 1104 New York NY 10018

수익사/동물병원

Church Road Ani. Hoop. 김영두(수의 61) Tel: (856)667-0101 2310 Church Rd. Cherry Hill NJ 08002

Animal Clinic of Parsippany 이형진(수의 60) Tel: (973)386-1711 Parsippany Rd. Parsippany NJ 07054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ountain Gear 서진욱(수의 75) Tel: (973)560-1909 18 Leamoor Dr. Whippany NJ 07981

스포츠 시설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Tel: (201)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Tel: (718)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Tel: (212)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연구소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Tel: (609)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병현(미대 57) Tel: (201)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고 화랑 고영수(미대 57) Tel: (212)619-2180 66 West Broadway New York NY 10007

요식업/식당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Tel: (718)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운송/통관

America Int'l Line, Inc. 윤양희(농대 80) Tel: (718)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Wider Express U.S.A., Inc 이종근(문대 64) Tel: (718)656-7744 177-25 Rockaway Blvd., Suite#204 Jamaica NY 11434

JP Express 이병희(문대 66) Tel: (718)995-0344 179-14 149th Rd., 2nd Fl. Jamaica NY 11434

Honey Bee Hauling 우한호(문대 58) Tel: (718)762-6512 138-35 Elder Ave. #15J Flushing NY 11355

유통/건강기능식품

영생건강 한인수(사대 73) Tel: (718)762-0812 140-11 33rd Ave. 1A Flushing NY 11354

Penn-Craft Corp. 손완배(농대 70) Tel: (201)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유통/도매

니시모토 트레이딩 김영봉(음대 83) Tel: (201)372-3109 602 Washington Ave. Carlstadt NJ 07072

Beauty Supply of New York 경무식(사대 83) Tel: (212)427-3881 2264 3rd Ave. New York NY 10035

유통/무역

Incel Corp. 김윤기(농대 71) Tel: (908)755-4217 1115 inman ave. #355 Edison NJ 08820

Bradlee International Ltd. 이상훈(공대 70) Tel: 212 West 35th St. New York NY 10001

유통/뷰티세플라이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대 62) Tel: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유통/산업기계부품

Linkwell Corp. 유두영(공대 66) Tel: (845)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유통/의류도매

Young One Fashion 원영일(공대 58) Tel: (212)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유통/하드웨어

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 Tel: (718)392-0111 43-01 37th St. L. I. C. NY 11101

유통/레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식(문대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의료/세과

Ob & Gynecology 손광호(외대 59) Tel: (718)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박상기 위장내과 박상기(외대 50) Tel: (718)939-8705 136-30 Maple Ave. #1D Flushing NY 11355

Chung, In Young, MD 정인용(외대 65) Tel: (908)755-7440 4 Progress St., TCM Plaza, A-7 Edison NJ 08820

동문 업소록

**황용규 내과**  
황용규(의대 66) Tel: (718)353-6200  
142-04 Bayside Ave. #3U Flushing NY 11354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Tel: (732)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l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Tel: (518)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Tel: (718)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이종현 심장내과**  
이종현(의대 60) Tel: (212)567-2424  
80 Seaman Ave. New York NY 10034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Tel: (609)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Suite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54) Tel: (718)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Tel: (732)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Tel: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의료/레이저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대식(의대 68) Tel: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의료/마취과

**Hudson Pain Management**  
강성홍(의대 67) Tel: (201)894-4788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마취의원**  
류재욱(의대 57) Tel: (201)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의료/병원

**우리종합병원**  
김호연(의대 46) Tel: (718)886-6677  
35-11 Farrington St. Flushing NY 11354

의료/비뇨기과

**정진우 비뇨기과**  
정진우(의대 66) Tel: (718)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의료/산부인과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Tel: (718)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의료/소아과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의대 75) Tel: (718)899-48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현중(의대 56) Tel: (908)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의료/안과

**Young S. Hahn, M.D.**  
한영수(의대 61) Tel: (718)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Tel: (516)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Tel: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Ray Drug**  
최구진(약대 54) Tel: (212)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Hopkin's Drug**  
고상희(약대 56) Tel: (718)429-2140  
63-19 Roosevelt Ave. Woodside NY 11377

**Drozen's Pharmacy, Inc.**  
이종대(약대 65) Tel: (718)652-1581  
774 Alerton Ave. Bronx NY 10467

**Raycol Drugs, Inc.**  
김동경(약대 61) Tel: (212)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Smile Drug**  
상기표(약대 57) Tel: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Tel: (718)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의료/외과

**채규철 외과**  
채규철(의대 53) Tel: (973)674-8168  
123 S. Munn Ave. East Orange NJ 07018

**Stan S. Chol, M.D.**  
최승용(의대 61) Tel: (908)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의원

**Jal J. Rhee, M.D.**  
이재진(의대 58) Tel: (718)426-646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Sung K. Lee, M.D.**  
이성근(의대 60) Tel: (908)359-8251  
101 Omni Drive Hills Borough NJ 08844

**Lee Allergy**  
이혁일(의대 73) Tel: (201)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지익(의대 69) Tel: (304)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Quest Diagnostics, Inc.**  
조재봉(의대 54) Tel: (201)393-5672  
One Malcolm Ave. Teterboro NJ 07608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용(의대 60) Tel: (516)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West Jersey Hospital**  
김미례(의대 70) Tel: (856)429-7696  
West Jersey Hospital Voorhees NJ 08043

**Summit Park Hospital, Dept. of Mental Health**  
윤영섭(의대 57) Tel: (845)364-2242  
Sanaterim Rd. Pomona NY 10970

의료/이비인후과

**이태봉 이비인후과**  
이태봉(의대 56) Tel: (212)759-9614  
30 Central Park South #11B New York NY 10019

의료/정신과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Tel: (718)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전종철(의대 57) Tel: (845)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조승열 정신과**  
조승열(의대 60) Tel: (831)667-4243  
1645 Deer Park Ave. Deer Park NY 11729

의료/치과

**강경훈 치과**  
강경훈(의대 65) Tel: (201)989-0606  
1625 Anderson Ave. #2 Fl. Fort Lee NJ 07024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Tel: (914)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의대 62) Tel: (212)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Tel: (718)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권영함 치과**  
권영함(치대 61) Tel: (718)458-6510  
40-33 69 St. Woodside NY 11377

**김영용 치과**  
김영용(치대 56) Tel: (718)969-9197  
135-33 Union Turnpike Flushing NY 11367

**최기철 치과**  
최기철(치대 69) Tel: (718)225-3337  
219-02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최말봉 치과**  
최말봉(치대 72) Tel: (718)898-9049  
605 Broad Ave., Suite 203 Ridgefield NJ 07657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Tel: (718)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6) Tel: (718)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김 승 치과**  
김 승(치대 61) Tel: (718)321-9342  
143-25A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이문세 치과**  
이문세(치대 72) Tel: (201)944-7238  
127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김경일 치과**  
김경일(치대 67) Tel: (718)229-6202  
214-20 45th Rd. Bayside NY 11361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Tel: (718)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Tel: (718)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홍성보 치과**  
홍성보(치대 61) Tel: (845)385-0859  
516 Rt 303 Orangeburg NY 10962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Tel: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73

의료/통증치료

**김승관 통증재활원**  
김승관(의대 70) Tel: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제조업/계약

**MERCK & Co.**  
석진경(약대 96) Tel: (646)872-7339  
Rahway NJ 07065

**Vital Health Tech. Inc.**  
시정용(약대 70) Tel: (973)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뷰티케어

**Kles Products, Inc.**  
한규성(의대 84) Tel: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제조업/의류

**Loadway Enterprises, Inc.**  
최수용(상대 35) Tel: (212)268-7955  
19W. 34St. New York NY 10001

**Jeffrey Allen Corp**  
이기영(상대 70) Tel: (201)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제량(상대 61) Tel: (201)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제조업/전자제품

**Coby Electronics Corp.**  
오상환(공대 82) Tel: (516)775-8880  
1991 marcus ave suite 301 Lake Success NY 11042

종교/목사

**든든한교회**  
김상근(목사 71) Tel: (718)463-8181  
33Ave. Flushing NY 11354

**복음장로교회**  
장세태(사대 63) Tel: (973)867-7123  
Bevercuyck Rd. Palisades Parkway NJ 07054

직장/종교

**연합감리교세계선교부**  
전남진(목사 64) Tel: (212)870-3829  
Riverside Dr. New York NY 10115

직장/의사

**St. James Hospital**  
김옥환(의대 59) Tel: (973) 465-2677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직장/무역

**Jung Hwa USA, Inc.**  
김영목(공대 75) Tel: (201)568-2656  
375 Sylvan Ave., 2nd Fl. Englewood Cliffs NJ 07632

출판/제일스맨

**가나안인쇄(출판사)**  
이춘삼(목사 35) Tel: (718)729-3132  
27-02 41Ave. LIC NY 11101

출판/출판사

**Hollym nal Corp.**  
이시진(목사 54) Tel: (908)353-1655  
Donald Pl. Elizabeth NJ 07074

컨설팅/이미지

**Jin Image Consulting**  
배지현(생활과대 83) Tel: (212)600-4234  
60 E. 42nd St., #1740 New York NY 10165

컴퓨터/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환수(사대 72) Tel: (201)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학교/봉사센터

**KCS Community Center**  
양제관(강영대학원 66) Tel: (718)686-8203  
42-15 166th street Flushing NY 11358

학원/기술학원

**Cooper Art**  
손승덕(의대 77) Tel: (201)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학원/댄스교습

**중앙일보문화센터**  
신광일(공대 50) Tel: (718)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학원/수학교실

**조달훈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Tel: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등분업소록

한방/의료원

시호한의원
박경룡(상대 63) Tel: (718)733-1399
30 EAST 200 ST Bronx NY 10468

한방/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Tel: (718)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한방/한의원

남경한의원
이인진(법대 54) Tel: (212)244-0036
124 West 30 St. New York NY 10001

한방/한의원

정영희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Tel: (201)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건축/개발

Mackone Development Inc.
양대훈(상대 56) Tel: (213)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Mackone Development Inc.
양은혜(상대 56) Tel: (213)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건축/시공

ACCU Construction, Inc.
임동해(상대 74) Tel: (951)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건축/구조설계

J.S. Chung Structural Engineering
장준성(공대 65) Tel: (562)943-0847
15820 Whittier Bl. # H Whittier CA 90603

공무원/컴퓨터프로그래머

Los Angeles County Internet Service Dept
신광재(공대 73) Tel: (562)940-2273
9150 E. Imperial Hwy, Mail Stop 17 Downy CA 90242

공인회계사

김재형 공인회계사
김재형(농대 62) Tel: (213)385-1985
2960 Wilshire Blvd., Suite#300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법대 62) Tel: (213)381-078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림(공대 85) Tel: (213)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Jung Mo Park & Co.
박정보(문리대 66) Tel: (213)383-4005
3255 WILSHIRE BLVD # 170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장병진(상대 76) Tel: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상대 65) Tel: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Tel: (714)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김동순 회계사
김동순(법대 59) Tel: (310)538-9315
1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강경수 회계사무소
장경수(법대 58) Tel: (213)383-4005
3255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Shin-Yong Kang CPA
장경수(상대 73) Tel: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 201 Los Angeles CA 90010

C.P.A.
김병현(상대 69) Tel: (213)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Ace Business Services, Inc.
조파연(상대 58) Tel: (818)994-7365
14617 Victory Blvd., #2 Van Nuys CA 91411

John J. Kim CPA
김종관(문리대 57) Tel: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공인회계사
신대식(상대 60) Tel: (310)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Daniel D. Moon CPA
문덕수(공대 73) Tel: (213) 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Jung Mo Park, CPA
박인희(간호대 66) Tel: (213) 383-4005
3255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장준공인회계사
장준(인문대 85) Tel: (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윤재호공인회계사
윤재호(상대 76) Tel: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이용철공인회계사
이용철(경영대 92) Tel: (949)756-3500
2 Corporate Park, Suite#202 Irvine CA 92606

Koogwon Kwun CPA & Assoc.
권국원(공대 69) Tel: (213)480-0520
3699 Wilshire Blvd., Suite #820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공인회계사
윤경민(법대 55) Tel: (213)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이강우공인회계사
이강우(인문대 76) Tel: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90005

KIM & KANG CPA
김경두(공대 69) Tel: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s
김규경(사대 77) Tel: (213)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공인회계사
조승범(경영대학대 74) Tel: (213)380-3333
3700 Wilshire Bl. #950, North Tower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s
김인철(농대) Tel: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임춘택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Tel: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병희(인문대 76) Tel: (213)487-1688
3700 Wilshire Bl # 939 Los Angeles CA 90010

Heung W. Youn CPA, MBT
유홍원(한강대학원 85) Tel: (213)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교회/지휘자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공대 60) Tel: (323)382-0691
1800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7

금융/부행장

First Standard Bank
최영구(상대 61) Tel: (213)434-2424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금융/은행

Shinhan Bank America
안종주(상대 85) Tel: (213) 251-3013
30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인헤드럴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Tel: (213)388-9000
370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제정설계

United Escrow Co.
박인수(농대 64) Tel: (213)388-3333
3440 Wilshire Bl, #60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은행장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Tel: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금융/Consultant, Loan

Countrywide Bank, FSB
이동희(경영대학원 82)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금융/모험투자

Venture Unlmted, LLC
남종우(공대 62) Tel: (714)738-1499
1912 Somerest Ln. Fullerton CA 92833

금융/세정설계

AXA Advisors
원영배(미대 74) Tel: (213)251-179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Tel: (626)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금융/은행

방코포플라시민은행
김영덕(법대 58) Tel: (323)731-1475
336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19

리테일러/정소도구 및 소모품

Weesco Inc.
김철환(공대 57) Tel: (213)384-2245
33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리테일러/상패

한국트로피/한국타올사
박양중(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리테일러/라켓

한남체인
하지원(공대 66) Tel: (213)381-38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리테일러/리퀴스토아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Tel: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e CA 90250

리테일러/패션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Tel: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Sharon's Fashion
신정식(상대 64) Tel: (626)449-1712
453 E. Orange Grove Blvd., Pasadena CA 91104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문대 59) Tel: (213)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리테일러/시품점

Sammy Mart
다칠삼(문리대 64) Tel: (213)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os Angeles CA 90015

리테일러/스테이셔너리

Morning Glory Stationery & Gifts USA
문병진(문리대 61) Tel: (714)739-2468
14747 Artesia Blvd. #5A La Mirada CA 90638

리테일러/Window Products

S R Window LLC
류 우(대학원 74) Tel: (909)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리테일러/Beauty Supply

OK Beauty Supply
김상옥(간호대 81) Tel: (562)531-7699
5808 Downey Ave. Long Beach CA 90813

리테일러/생수

Living Water
박국종(법대 57) Tel: (909)874-4966
2828 W. Rialto Ave. Rialto CA 92326

등분 '인명록'

주분은

뒷 표지 광고의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건축/컨설팅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상대 59) Tel: (818)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건축/설계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Tel: (310)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건축/토목설계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Tel: (310)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건축/설계

KMD Architects
안철우(행정대학원 71) Tel: (310)394-7725
1733 Ocean Blvd., Suite#310 Santa Monica CA 90401

동문 업소록

리테일러/그로서리

**La Palama**  
송장길(문리대 60) Tel:(323)734-3459  
1505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18

리테일러/건강식품

**Accent on Health**  
김일혜(약대 58) Tel:(818)360-1516  
18559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4

리테일러/정원가구점

**Ace Outdoor Power Equip**  
이근원(상대 67) Tel:(951)735-9980  
385 E. Grand blvd. Corona CA 92879

무역/선적

**SY shipping Corporation**  
김송진(법대 38) Tel:(562)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무역

**L.A. Supply Co**  
전승택(사대 60) Tel:(562) 404-1502  
13700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 CA 90670

**Tribeet Corp.**  
최세경(문리대 70) Tel:(714)879-7150  
1143 N. Patt St., Anaheim CA 92801

무역/농산물

**Green Zone Int'l**  
김환평(차대 65) Tel:(714)724-2580  
2800 Keller Dr. Suite 11Tustin CA 92782

무역/건축자재

**AMSCO Corp.**  
신영수(상대 70) Tel:(562)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상대 73) Tel:(714)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무역/회공약품

**America Modern, Inc**  
조충성(상대 71) Tel:(562)529-2018  
16316 Downey Ave. Paramount CA 90723

무역/섬유수출입

**Wonu USA, INC.**  
지성호(경영대학원 73) Tel:(310)527-0005  
13951 S. Main St. Los Angeles CA 90061

무역/수출입

**CKL**  
김순길(문리대 61) Tel:(213)488-1750  
110E. 9th St., #A404 Los Angeles CA 90079

무역/전자제품

**Panarex Inc.**  
김원택(문대 65) Tel:(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무역/관공용 기기 및 약품

**YoungIn(USA) Inc.**  
이영수(상대 60) Tel:(626)448-3039  
11100 Valley Blvd. #125, El Monte CA 91731

무역

**Martial Supply Kons Trading Co., Inc.**  
이근원(상대 65) Tel:(323)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변호사/법률사무소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Tel:(213)639-2900  
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박준창 변호사**  
박준창(인문대 79) Tel:(213)389-5900  
3345 Wilshire Bl. #810 Los Angeles CA 90010

**옥유진 변호사**  
옥유진(농대 64) Tel:(213)365-2229  
610 S. Van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BPNJ Professional Law Co.**  
장시일(법대 85) Tel:(213)380-8777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Tel:(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 2230 Los Angeles CA 90010

**김지영 변호사**  
김지영(사대 69) Tel:(213) 532-3600  
3700 Wilshire Blvd., #61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s of Steven S. Kim**  
김석희(상대) Tel:(818)717-0429  
P.O.Box 280756, Northridge CA 91328

변호사/이민법

**이경희 이민법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Tel:(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중개업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Tel:(213)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코이 종합보험(주)**  
이경희(상대 67) Tel:(213)387-5252  
3200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Balboa Insurance**  
오계석(경영대 90) Tel:(949)222-7344  
3349 Michelson Dr. Irvine CA 92612

부동산/모기지

**ACE Mortgage & Funding**  
김철현(상대 61) Tel:(818)241-4086  
234 N. Grand Blvd., Glendale CA 91203

부동산/부동산관리

**럭키부동산관리회사**  
김희재(사대 66) Tel:(213)736-5872  
3200 wilshire blvd., #1507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중개업

**CY & Associates**  
조순명(문리대 65) Tel:(714)562-0234  
6910 Oslo Cir., #205 Buena Park CA 90621

**Coldwell Banker-Commercial**  
강호권(상대 60) Tel:(626)445-6600  
660 W. Huntington Dr. Arcadia CA 91007

**Marvista 21 Realty**  
정문영(문대 60) Tel:(951)295-9005  
8320 E. Florence Ave. Downey CA 90240

**Team Spirit Realty**  
박정원(사대 72) Tel:(714)562-040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2606

**켈터윌리엄 부동산**  
최태호(보건대학원 63) Tel:(626)204-3300  
445 S. Fair Oaks Ave. Pasadena CA 91105

**Keller Williams Realty**  
유강성(농대 56) Tel:(661)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Young Properties**  
김재형(문대 64) Tel:(310)454-0356  
1255 El Hito Circle Pacific Palisades CA 90272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Tel:(951)454-03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표(간호대 69) Tel:(714)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이영희 부동산**  
이영희(생활과학대 69) Tel:(592)904-4646  
8202 Florence Ave.#201 Downey CA 90240

**Keller Williams**  
윤종숙(문대 71) Tel:(310)308-7817  
439 N. Caman Dr. Beverly Hills CA 90210

**Chongnoh Realty**  
노종근(문리대 53) Tel:(310)212-7744  
2825 Plaza Delomo #134 Torrance CA 90503

부동산/관리

**Old Property Management Co.**  
허기환(상대 66) Tel:(213)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투자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리대 58) Tel:(310)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상민정(문대 65) Tel:(562)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비영리법인/협회

**한미당노련회**  
김용인(보건대학원 65) Tel:(213)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최주봉(경영대학원 69) Tel:(213)268-9415  
511 S. Kenmore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비영리법인/연구원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Tel:(213)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비영리법인/복지센터

**코리안복지센터**  
홍석관(사대 47) Tel:(323)668-9007  
4416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비영리법인/국군포로송환위원회

**I.K.W.M.F.**  
민홍진(사대 59) Tel:(213)389-1536  
680 Wilshire Place #412 Los Angeles CA 90005

비영리법인/정학회

**청운장학회**  
오재인(지대 33) Tel:(626)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상담/재정설계

**AXA Advisors LLC**  
정인현(간호대 72) Tel:(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상담/교육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사대 60) Tel:(323)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세탁소

**Cleaner**  
김문국(상대) Tel:(818)508-0909  
4821 Lankershim Blvd., #1 North Hollywood CA 91601

서비스/전자제품 특별보험

**Hillen's Coast TV, Inc.**  
김일태(상대 62) Tel:(949)859-8774  
23182 Alcalde Dr., #1 Laguana Hills CA 92653

서비스/염색가공

**BMS Textile, Inc.**  
추춘득(문대 69) Tel:(310)886-1100  
1800 S. Anderson Ave. Compton CA 90220

**Care Tex Industry, Inc.**  
강봉철(약대 30) Tel:(323)667-5200  
4583 Firestone Blvd. South Gate CA 90280

**Jade Textile, Inc.**  
임예건(농대 69) Tel:(213)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서비스/세탁소

**가주레미콘회사**  
김인희(간호대 59) Tel:(562)483-5200  
13651 E. Rosepan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서비스/결혼예복

**Wilshire Bridal \$ tuxedo**  
김영욱(농대 71) Tel:(213)365-9333  
3818 382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스킨케어

**벨라스킨케어**  
김영희(문대 62) Tel:(562)338-8064  
677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서비스/통역

**Better Comm**  
정연산(인문대 81) Tel:(213)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통역,번역

**Ace Translation Services**  
진범수(농대 71) Tel:(714)863-9555  
13205 Fonseca Ave. La Mirada CA 90-638

서비스/세탁소

**New-Life Cleaners**  
오인근(약대 59) Tel:(310)477-0684  
11686 GATEWAY BLVD LA CA 90064

**Town Gate Cleaner, Inc.**  
현태복(인문대 82) Tel:(951)656-9780  
12625 Frederik St., 1-6 Moreno Vasilley CA 92553

서비스/포토

**유니컬러**  
배인철(사대 60) Tel:(323)667-2087  
4632 Santa Monica Blvd., #31-B Los Angeles CA 90029

서비스

**Head Consulting JC Consulting**  
유석환(농대 83) Tel:(213)382-9033  
3470 Wilshire Blvd., #616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인쇄업

**프린타인쇄소**  
민종식(문대 59) Tel:(323)734-9966  
3604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프린타인쇄소**  
지숙영(문대 59) Tel:(323)734-9966  
3604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Pest Control

**K-One Termite, Inc**  
심명섭(문리대 65) Tel:(213)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유틸리티

**Uniserve Corp**  
황상민(문리대 60) Tel:(213)533-1000  
550 S Hope St # T 200 Los Angeles CA 90071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Tel:(323)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서비스/서류리터

**Eastman Security**  
이의택(신문대학원 70) Tel:(626)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관(문대 76) Tel:(949)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광고

제조업/섬유

CS America, Inc.
주수봉(공대 67) Tel:(323)583-6930
4309 Exchange Ave., Vernon CA 90058

제조업/전기

삼성전기
김정욱(공대 67) Tel:(949)797-8027
3345 Michelson Dr. Suite 350 Irvine CA 92612

제조업/통신장비

RF Connection, Inc.
이동휘(공대 63) Tel:(562)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제조업/ATS 제작

한광유에스에이
김상호(사대 52) Tel:(714)232-9909
5215 S. Boyle Ave. Vernon CA 90058

제조업/모터개발

Silla America, Inc.
이기준(법대 54) Tel:(323)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종교/교회

글로벌 선교교회
장성현(유대 77) Tel:(909) 396-4441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허영신(문리대 61) Tel:(714)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사랑의 빛 선교교회
남재희(음대 65) Tel:(626)744-9191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부모님선교교회
신중자(사대 61) Tel:(714)778-1721
510 S. Greenwich St. Anaheim CA 92804

소망선교교회
허재신(문리대 64) Tel:(818)920-0858
10400 Zelzah Ave. Northridge CA 91326

유니온 교회
박근상(사대 64) Tel:(626)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라칸나다 한인교회
복교원(공대 65) Tel:(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ccanada CA 91011

중앙교회
박장균(문리대 62) Tel:(323)735-6585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박성근(문리대 72) Tel:(213)383-4982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유종호(문리대 61) Tel:(562)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복음총만교회
서재영(사대 70) Tel:(213)389-3189
433 S. Lake St., #313 Los Angeles CA 90057

성서장로교회
나민주(음대 65) Tel:(310)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남가주 꿈이있는 교회
김수영(사대 37) Tel:(714)232-9909
421 S. Sunkist St/ Anaheim CA 92806

아름다운교회
고승희(장영대 77) Tel:(626)810-3455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Tel:(626)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홀러튼 장로교회
노진걸(사대 72) Tel:(714)446-9010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종교/목사

올타리교회
신동희(공대 78) Tel:(714)232-9909
14946 Shoemaker Ave., #A Santa Fe Springs CA 90670

트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Tel:(310)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산상보훈교회
이중남(농대 61) Tel:(714)552-6222
1130 E. Walnut Ave. Orange CA 92867

직장/소프트웨어

Cisco System, Inc.
인광희(공대 73) Tel:(408)424-4734
121 Theory Dr. Irvine CA 92612

직장/행정

Center Bank
유재환(상대 67) Tel:(213)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직장/광고

미주총신
최명용(유대 64) Tel:(213)487-1010
2975 Wilshire Bl., #300 Los Angeles CA 90010

직장/출판

C.S.U. L.B./College of Business Admn.
신재강(상대 61) Tel:(562)985-8609
1250 Bellflower Blvd., Long Beach CA 90840

한국 출판사
박양중(문리대 61) Tel:(213)38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권설링/세정설계

AXA-Advisors
정인현(산호대 72) Tel:(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권설링/세정

Commonwealth Business Bank
마준태(상대 80) Tel:(323)988-3010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권설링/교육정보

양민박사 대학컨설팅(US Edu Con)
양 뒤(공대 77) Tel:(213)738-0744
305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권설링/수리판매

Computer Pro
유재우(공대 83) Tel:(310)863-0132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권설링/기업전산프로그램

ERP Enterprise Resauce Program
간재환(음대 90) Tel:(213)738-1010
335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통관/운송

Bel Air Postal Center
김중혁(상대 65) Tel:(310)475-0788
2934 Beverly Glen Circle, L.A. CA 90077

학원/음악

Les Etoiles 트리오
김소현(음대 76) Tel:(310)539-3466
2330 Arlington Ave. #10 Torrance CA 90501

학원/온라인 경영학

Pacific Western University
신재강(상대 61) Tel:(562) 57-5344
www.pwu-ca.edu Long Beach CA 90840

학원/일반학원

Keystone Academy
시재익(약대 39) Tel:(818)248-3322
275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박문규(문리대 66) Tel:(213)381-3710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학원/수학교실

La Canada Kumon Learning Boss
고숙사(문리대 72) Tel:(818)348-3123
4515 Ocean View Bl. La Canada CA 91011

한방/의원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교육대학위 66) Tel:(714)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수의대 66) Tel:(213)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Life Acupuncture Clinic
김민삼(공대 52) Tel:(323)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북가주

건축/설계

안백영종합건축설계
안백영(공대 75) Tel:(650)548-2610
533 Airport Blvd., Suite#388 Burlingame CA 94010

금융/은행

Hanin Federal Credit Union
박종영(상대 52) Tel:(213)368-9000
3700 Wilshire Blvd., #104 Los Angeles CA 90010

변호사

Law Office of Anna K. Oh
신정란(음대 68) Tel:(916)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비영리법인/학교

국제하모니카음악치료연구소
윤성희(사대 58) Tel:(650)248-1009
987 Addison Ave. Palo Alto CA 94301

국제하모니카음악치료연구소
나명숙(사대 61) Tel:(650)248-1009
987 Addison Ave. Palo Alto CA 94301

비영리법인/학회

국제해양\*지구공학회
정진수(공대 56) Tel:(650)254-1871
495 North Whisman Rd., Suite 300 Mountain View CA 94043

상담/Art 권설링

Keyoung Art Advisory LLC
장민성(미대 98) Tel:(415)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서비스/결혼상담

돌이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Tel:(510)451-0240
2910 Telegraph Avenue, Suite 200 Oakland CA 94609

수의사/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수의대 73) Tel:(510)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Tel:(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숙박업/호텔

Ramada Yosemite
최정신(농대 65) Tel:(559)658-5500
48000-800 Royal Oak Dr. Oakhurst CA 93644

의료/의원

산부인과
황동희(의대 65) Tel:(415)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이진영 외과
이진영(의대) Tel:(408)280-5655
100 O'Connor Dr. #12 San Jose CA 95128

의료/외과

Samuel Chol, DDS
최상귀(치대 63) Tel:(916)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부영무 치과
부영무(치대 70) Tel:(408)737-8008
425 E. Remington Dr. #6 Sunnydale CA 94087

직장/Nurse Practitioner

On Lok Lifeway
남수현(간호대 93) Tel:(415)292-8303
1333 Bush St. San Francisco CA 94109

한방/의원

박희례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Tel:(631)423-8753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샌디에고

건축/사재생산

Sierra Padre Mill Co.
임찬민(문리대 61) Tel:(760)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보험/중개업

Insurance Agent with Farmers
임용갑(공대 84) Tel:(858)243-2504
3160 Camino Del Rio South #118 San Diego CA 92108

부동산/중개업

Juns Lee 부동산
이준희(의대 78) Tel:(858)525-3222
4428 Conv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

Mission George Ani. Hoep.
이재현(수의대 76) Tel:(619)280-1503
San Diego CA 92120

Nordahl Pet Clinic
권원핵(수의대 83) Tel:(760)745-5171
630 Nordahl Road, Suite L San Marcos CA 92069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Tel:(760)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엔지니어링/방위산업

Ahntsch, Inc.
안수명(공대 61) Tel:(619) 516-5900
3333 Camino Del Rio South 3120 San Diego CA 92108

의료/의원

샌디에고 소아과
박정민(의대 58) Tel:(858)966-5846
3030 Children's Way #205 San Diego CA 92123

의료/약국

De Anza View Pharmacy
안영민(약대 66) Tel:(858)274-1660
3737 Moraga Ave. #B103 San Diego CA 92117

의료/기정주치의

San Diego Microsurgical Inet.
이실홍(의대 42) Tel:(619)542-1280
4077 5th Ave. San Diego CA 92103

의료/의사

San Diego County Psychiatric Hospital
강영희(의대 56) Tel:(619)692-8662
3853 Rosecrans St. San Diego CA 92110

의료/외과

김경수 치과
김경수(치대 58) Tel:(213)482-5462
1127 Wilshire Blvd. # 1500 Los Angeles CA 90017

의료/의원

Kent Pathology Lab
김세원(의대 57) Tel:(818)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 단

##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이천구(농)

제10대 회장: 송순영(문)

차기회장: 김은중(상)

관악후원 회장: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이준행(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태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중민(공) 한재은(의)  
신용남 (농) 김지영(사)

##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김정주(문)  
총무국장: 이승자(사)  
재무국장: 박 숙(의)

특별간사: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위원

발행인: 송순영(문)  
주 필: 이윤모(농)  
편집위원: 고병철(법) 이승자(사) 조대현(공) 윤효정(사)  
편집장: 이기준

논설 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라철삼(LA) 백 순(DC) 오강남 (BC) 오기창(CH)  
육길원(CH)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쾌(SF) 한창섭(NY)

## 서울대 미주 동창회 지역 지부

남가주	회장	제영혜(가정 71입) 714-809-4481 yvonnelee52@msn.com	오하이오	회장	최인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i613@gmail.com
	차기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임승배(문리 66입) 510-381-1054 sk0425@hotmail.com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샌디에이고	회장	박우선(공대 57입) 858-603-6878 haljopark@cox.net	하들랜드	회장	김명자 (문리 62입) (402) 493-2284 jtkohr@msn.com
	차기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hdds@aol.com		차기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뉴욕	회장	신용남(농대 70입) 718-463-3131 peters1027@aol.com	플로리다	회장	전일수(상대 50입) 305-606-1982 eugenechun@hotmail.com
	차기회장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워싱턴DC	회장	박우광(약대 60입) 301-330-6921 moopark@nih.gov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정상록(약대 83입) 240-346-1043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lrchildseml.com
시카고	회장	노영일(의대 62입) 708-226-0345 youngllro@comcast.net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510-655-3239 gjdeon@80square.com
	차기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kminc@aol.com		차기회장	정량수(의대 60입) 828-442-8711 drchung3@yahoo.com
필라델피아	회장	손재욱(가정 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로키마운틴스	회장	강창운(의대 72입) 720-344-2815 mydreamis@comcast.net
	차기회장	전방남(상대 73입) 215-360-4138 jeonbana@drexel.edu		차기회장	전남민(사대 입) 719-592-0037 jhonjeun@hotmail.com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애리조나	회장	고광선(공대 57입) 425-488-6326 ncyangkoh@gmail.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차기회장	오덕겸(의대 58입) jindori@cox.net
델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lee4@naver.com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입)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이석호(은대 78입) 972-475-1184		차기회장	김진영(공대 72입) 503-686-038 jin.y.kim@intel.com
조지아	회장	이영신(공대 76입) 404-579-8282	알래스카	회장	장근유(미대 58입) 907-748-0067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sville@aol.com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이승찬(농대 55입) 647-246-2405 schanlee@rogers.com
	차기회장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email.com
미네소타	회장	남세현(공대 67입) 651-285-9715 ssnam@mrm.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오강남(문리 61입) 604-461-5178 soft103@hotmail.com
	차기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이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워싱턴주	회장	김재훈(공대 72입) 425-681-4253 jkim1@ieee.org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on@hotmail.com
	차기회장	신창범(법대 73입) 206-949-787 changshin@eschelton.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 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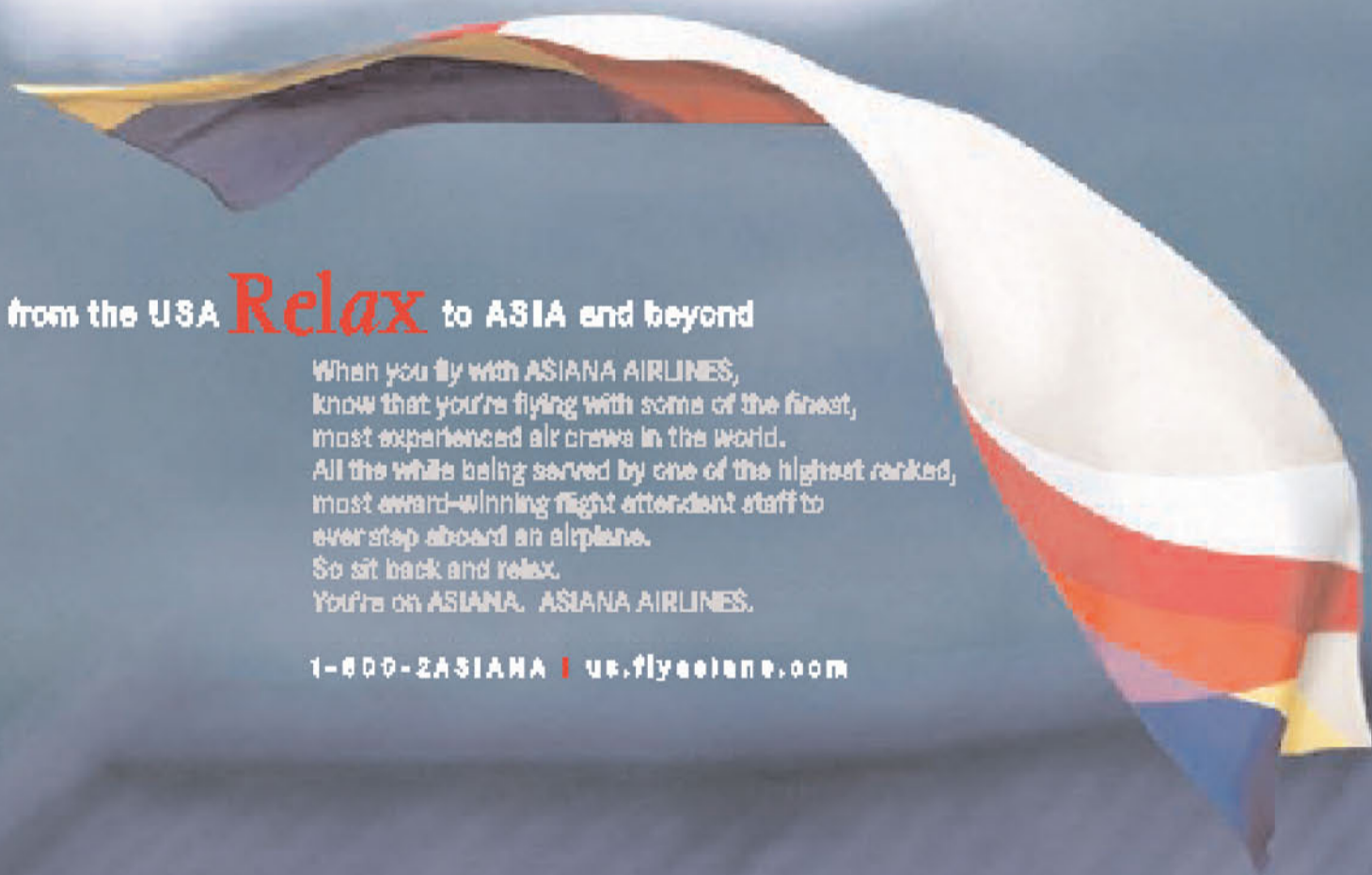




from the USA **Relax** to ASIA and beyond

When you fly with ASIANA AIRLINES,  
know that you're flying with some of the finest,  
most experienced air crews in the world.  
All the while being served by one of the highest ranked,  
most award-winning flight attendant staff to  
ever step aboard an airplane.  
So sit back and relax.  
You're on ASIANA. ASIANA AIRLINES.

1-800-2ASIANA | [us.flyasiana.com](http://us.flyasiana.com)



2009  
Airline of the Year  
(Air Transport World)

2004, 2005, 2006, 2007, 2008  
Best Inboard Service &  
Flight Attendants (Global Traveler)

2004, 2007, 2008  
Best Flight Attendants & Best In-Flight Service  
in the world (Business Traveler)

2007, 2008  
Five Star Airline  
(Skytrax)

